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올레’를 통해 본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의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 회 과 교 육 전 공

김 소 연

2012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올레’를 통해 본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의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 회 과 교 육 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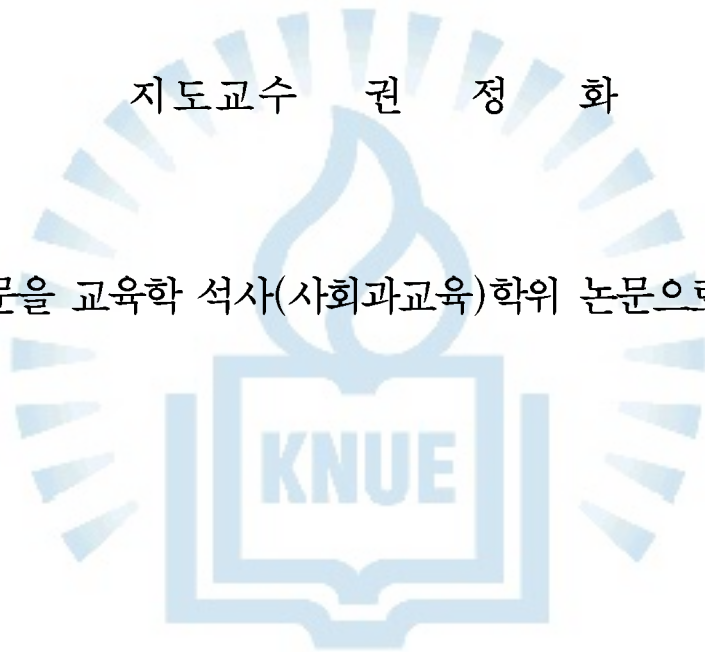
김 소 연

2012년 2월

제주도 ‘올레’를 통해 본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의미 탐색

지도교수 권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사회과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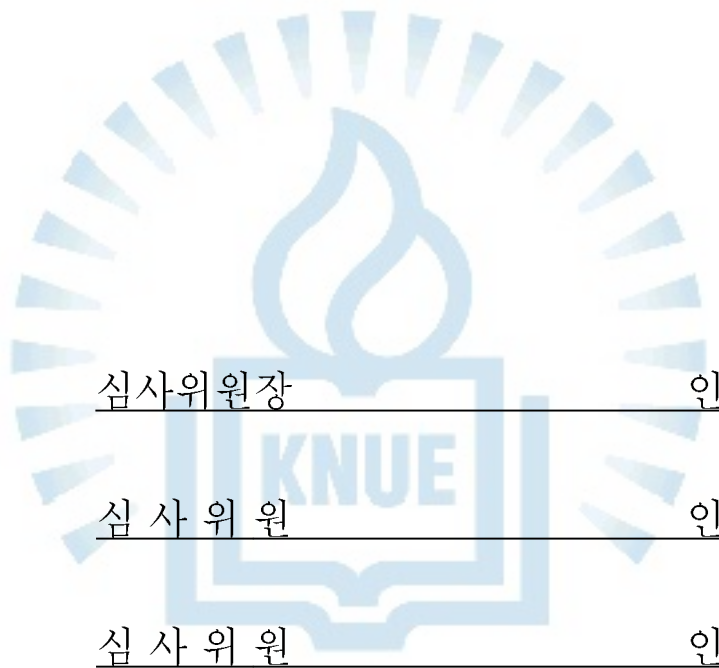
사회과교육전공

김 소 연

2012년 2월

김 소 연 의

교육학석사(사회과교육)학위 논문을 인준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 목 차 >

논 문 요 약	iv
---------------	----

I. 서론	1
-------------	---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3

II. 장소 정체성의 이해	5
----------------------	---

1. 장소의 속성과 의미	5
가. 일상성	7
1) 언어의 일상성	8
2) 스케일의 일상성	9
3) 네트워크의 일상성	16
나. 영역화	21
1) 동일성과 장소	21
2) 사회적 구조와 장소	25
3) 차이와 장소	30
2. 장소와 장소 정체성	35

III. 장소 정체성과 수행성	39
------------------------	----

1. 장소의 재현과 생성	39
2. 수행성과 정체성, 그리고 장소	41
가. 수행성의 정의와 특징	41
나. 수행-중의-주체	44
다. 실천하는 저항성	47
라. 수행적 장소 정체성	50
3.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실천	52
가. 행위하는 인간과 행위의 직접성	53
나. 다원성과 소수자성	55

IV.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실제	56
1. 사례 지역의 특성	56
2. 올레와 수행적 정체성	61
가. 올레길이라는 우연한 사건	61
나. 올레의 전통적 의미	64
1) 마을과 개인의 연결 공간	64
2) 흐름의 공간	67
3) 관계의 공간	70
4) 신앙과 제의의 공간	74
다. 올레와 수행적 장소 정체성	80
1) 올레의 기획과 의미	80
2) 올레와 장소 정체성의 문제	81
3) 올레와 관광 제주	83
4) 수행성에 관한 행위 주체의 문제	86
5)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생산	88
6) 올레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	91
3.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교육적 의미	98
가. 생활세계의 장소 의미	98
나. 서사성과 총체성의 장소 의미	100
V. 결론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2

< 그림 목차 >

<그림 1> 고리형 마을길	67
<그림 2> 길의 체계에 따른 민가의 분포	67
<그림 3> 제주 민가 공간질서의 체계	68
<그림 4> 문전본풀이와 제주전통민가의 공간구조	77
<그림 5> 올레꾼들의 반대서명	96
<그림 6> 올레꾼들의 응원 킷말들	96



논 문 요 약

제주도 ‘올레’를 통해 본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의미 탐색

김 소 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과교육 전공
(지도교수 권 정 화)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장소 경험의 속성을 규정하고 장소의 자기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행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행위의 반복 실천을 통해 생성되는 수행적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장소는 자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의미화이면서 지리적인 표현이다. 전통적으로 장소는 개인적 공간 경험의 누적층으로 가치가 있으며 경험 범위의 확장과 같이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술과 자본의 발달은 생활양식의 질적 변화를 동반하였다. 장소를 획득한다는 것은 직접적 경험보다는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미디어나 인쇄 매체를 통한 간접적 경험은 사회-공간적 관계와 구조에 대한 자기 인식 및 자기화를 촉진하는 장소 경험이 되었다. 장소는 자신에 대한 사회-공간적 관계의 직접성을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자기화하는 실천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장소는 일상성과 영역화를 통해 인식된다. 특히 일상성은 습관처럼 내면화된 장소를 경험하기 위한 개념으로 스케일과 네트워크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스케일은 다차원적 사회-공간 경험을 의미하며 장소 경계의 설정 및 역

동성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공간을 연속성과 상호의존성에 따른 연결망으로 파악하며 위계적 스케일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횡단하며 장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장소의 영역화는 개인의 내적 동일성과 집단적 동질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배제와 포섭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회적 구조로부터의 차이를 실현하는 일로 지속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공간의 동질화로 진정한 장소를 판별하는 일은 사회적 집단이나 구조로부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즉 장소는 다양한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해 자기 인식 및 자기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가변적이다.

따라서 장소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고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장소를 구성하는 주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로 장소에 의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 장소에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소로 인식한다는 것은 공간에 대한 영역화를 이룬 상태이다. 따라서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사회-공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미를 수행하는 것이다. 행위는 장소 경험을 실천하는 것으로 다양한 장소 생성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상적 행위는 사회적 구조화로 인해 배제된 차이의 영역들을 인식가능한 영역으로 드러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위는 장소에 기반을 둔 정체성들의 세련화를 이뤄냄으로써 사회-공간 구조를 수행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제주 올레의 경우 정체성의 형성은 제주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참여만큼 폭발적 의미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올레의 정체성은 지배집단의 의미화나 언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경제적 효과의 파급으로 장점만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정치·경제활동 등은 올레의 의미를 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정당화 되고 있다. 올레를 통한 지역민의 자발적인 의미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상성을 기반으로 한 장소 정체성 또한 생성되지 않고 있다. 올레는 지역민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소수자

라는 주변성에 위치해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자신의 사회-공간적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계기이다. 따라서 올레를 통해 창출되어야 할 수행적 장소 정체성은 지역민의 적극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경험이 투영된 장소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올레에 대한 지역적 커뮤니티의 생성은 제주 사람을 장소 주체로서 존재하게 할 것이다.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와 행위의 실천만이 장소의 주체를 만드는 가장 구체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2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사회과교육)학위 논문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 의미의 장소는 개인이 몸담고 있는 특정한 영역을 말하며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고유성과 독자성으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은 오랜 시간동안 의미가 축적되면서 공간화 된 것으로 그 곳에서 생활을 했던 개인이나 집단적 성향과 동일시되곤 한다. 즉 장소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개별적 의미부여와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심으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장소는 위치나 외관처럼 간단히 기술될 수 있는 명확한 실체가 아니다. 더욱이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라는 경험 양식의 질적 변화로 인해 장소는 고유성을 획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본래 세계에 대한 경험 방식은 국가, 지역, 공동체, 집과 같은 각각의 스케일에 따라 분리되어 정해져 있었다. 사회-공간적 활동은 특정 스케일의 공간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소 경험은 정해진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술·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공간에 대한 경험은 간접적인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 되고 있다. 상징과 이미지는 장소 경험을 전달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장소 경험은 집이나 동네 등의 특정한 공간적 범위로 한정지을 수 없으며 '일상생활'이라는 인식의 범위로서 재의미화가 필요하다.

장소는 개인의 주관적 차원의 의미화를 뜻한다. 일상적 행위와 의도, 관계에 대한 인식이 지리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의 장소 경험도 시시각각 변하게 되었다. 장소의 구성, 즉 장소의 자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래 장소의 의미는 출생과 성장을 통해 미지의 공간을 자신의 장소

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즉 장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타인과 다른 개체임을 깨닫는 것이므로 자기화의 경계 설정과 영역화 과정으로 구체적이며 적극성인 실천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장소 외적 관계의 사회-공간적 구조와 관계에 대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행위의 실천이 중요하다. 인간의 생의 주기는 공간의 확장과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의도와 의미를 반영하며 장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 정체성이 의도와 의미가 반영되는 과정적 시각을 획득함에 있다면 사회-공간 구조에 대해서도 동일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공간 구조는 장소의 의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양식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구조를 인식하는 시각은 장소를 포섭하거나 규정짓는 거대원리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힘의 논리에 따라 배제되는 장소 의미를 만들어냄으로서 소외되는 장소와 장소 주체를 양산하고 있다. 장소는 공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므로 다양한 의미를 인정하고 생성시키는 것은 사회-공간 구조를 열린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소는 개별성과 다원성으로 독립되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세계적 자본주의의 동질화 경향에 대비되어 장소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변화무쌍함과 무장소의 일상경관 속에서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적 모색이 필요하다.

특정한 장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장소와 관련된 시간, 사람, 행위와 이들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즉 장소성, 장소 정체성은 인간이 행위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적 의미를 달리 하는 일이 된다.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개별성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장소 사례를 통해 탐색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장소를 이루는 관련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개별적 장소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 장소 경험의 의미를 재규명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장소의 역할이 풍경이거나 과거적 표현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장소의 역할은

주체에 대한 가능성의 표현으로 미래를 위한 구성에 중심을 둔다. 따라서 장소 사례는 개별적 의미를 찾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장소 주체가 되기 위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과정으로 장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행위는 장소 경험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영역화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장소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장소의 개별성과 다원성을 획득하고 사회-공간적 관계를 마련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전략이며 동시에 구조에 저항하는 힘으로 장소성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영역, 사회라는 당면한 상황이 주는 범위와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재 진행형의 사실은 차이의 실천이면서 미래에 대해 의의를 갖는다.

장소 경험의 개별적 의미와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뿌리를 내리고 거주할 수 없는 시대에 진정한 장소 정체성이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시시각각 주어지는 시공간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적 영역으로서 장소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장소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자신의 장소를 바탕으로 세계를 자기화할 수 있는 지리적 능력을 키우는 일이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장소경험의 의미를 규명하고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장소 의미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함께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장소 정체성을 탐색하고 설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장소의 구성요소인 행위를 중심으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장소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장소의 본질적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장소는 개별적 의미부여 및 삶에 대한 현상적 이해가 가능한 곳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대의 시공간성은 정착과 거주에 따른 의미화를 넘어 시공간의 중심축으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장소의 본질적 속성과 의미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의 본질적 속성을 일상성과 영역화로 꼽고 현대의 일상성으로는 언어, 스케일, 네트워크, 영역화는 장소를 의미화 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로 동일성, 차이, 사회적 구조와 장소의 관계로 세분화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장소로 의미화 하는 일은 자기화의 적극적 행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밝히는 데 있다. 사회-공간적 구조로부터 장소를 구분 짓는 일은 사회적 동질화 경향이 강한 현대의 시공간성으로부터 다양성과 대안적 잠재성을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수행성은 정체성의 수행적 구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지속적인 변화와 과정에서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한다. 수행성은 장소의 의미를 사회-공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며 다양한 장소의 생성과 잠재가능성을 통해 사회-공간 구조에 대해 새로운 질서를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올레길을 통해 특정 장소의 의미가 행위의 반복 실천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제주 올레는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아와 동일시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행성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이상의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제주 올레를 통해 누가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이냐와 관련이 되어 자발적 의미화와 실천,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위치 개선 등의 참여적·저항적 의미에서 수행성 장소 정체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II. 장소 정체성의 이해

1. 장소의 속성과 의미

장소는 흔히 주관적 의미화의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느냐 혹은 다른 장소와의 관련 속에서 상대적 위치를 갖느냐에 따라 내적·외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장소의 외적 관계로서 장소와 장소의 교류는 사회 속에서 행위를 제약하거나 촉발할 수 있는 행위의 규칙들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장소는 사회체계(social systems) 속에서 존재하며 지역이나 로케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장소라는 범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기본으로 구조와 제도라는 맥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관계의 원리에 따르면 장소의 내적 관계는 구조와 제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공간이 갖는 사례이거나 특수한 상황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최재현(2005: 11)은 인본주의 시각에서 지역정체성은 장소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성, 주관성, 상징성, 의도성, 문화적 관계를 중요시 한다고 하였다. 또한 Johnston(1991)의 주장을 인용하며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인공 환경, 사회적 관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지시켰다. 장소는 스스로의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지역이라는 원리, 즉 집단적 전체성이라는 범위 속에서 사적이고 부분적인 영역으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장소는 위치나 외관으로 간단히 기술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명확한 실체가 아니다(Relph, 김덕현 외역, 2005: 77). 장소는 합리적인 계량이 가능하거나 보편적인 의미로 치환될 수 없는 가치 부여의 산물이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기화를 체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불리우며 자기화 되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듯이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양한 명명(naming)으로 자기화 하는 곳이 장소이다. 따라서 장소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차이로 느껴지는 때는 자신이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 가능하다. 자기화는 인간의 특수한 시공간이 장소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소의 범위는 가정이나 구역, 텃세권(turf), 공동체, 국가, 경관과 같이 쓰이기도 하며 대상에 따라 예술의 장소, 여성의 장소 등 은유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Harvey, 박영민 역, 1995: 33-34). 이는 장소가 갖는 시공간적 특수성인 동시에 인간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가장 다목적적인 어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는 지역이나 국가 등 '전체를 이루는 부분의 합'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 장소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장소라 규정하는 모습에서 찾아야 할 이념이다. 장소는 시공간적 지식이며 개별성의 독립체이므로 현상 자체에 의미를 두고 명료화해야 한다. 장소성에 대한 탐색은 개인들의 다양한 장소 경험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장소 외적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장소가 구성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체계나 제도 등 맥락에 의해 파악되기를 거부하며 인간과 장소의 내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이 의미를 두는 공간적 범위가 장소가 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공간적 범위에 있는가를 탐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맥락으로부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진정한 장소는 관계의 직접적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장소 경험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다양한 장소 경험들이 어떤 과정에서 장소 인식에 이르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 인식이 일상성, 영역화를 획득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일상성

장소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곳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과 동일시되는 곳이다. 따라서 장소에 대해 갖는 소속감은 장소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감정적 준비 상태이다.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곳으로서 장소는 생활세계라 할 수 있으며 습관처럼 내면화되어 모든 것을 의문시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는 태도가 이루어지는 세계(권정화, 2005: 211)이다. 따라서 장소는 일상성을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위이다.

Hägerstrand(1970; Harvey, 구동회 외역, 2009: 251)의 시간지리학에 따르면 개인은 공간 위를 이동함으로써 시간을 소비하는 기획에 참여하는 '목적'을 가진 주체'로 간주된다. 개인은 일상적 이동경로(집에서 공장, 상점, 학교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에서 인생의 각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이주(어려서는 시골에서, 직업교육은 대도시에서, 결혼 후 교외로 그리고 은퇴해서는 다시 시골로)에 이르기까지 '시공간 위에서의 삶의 경로'를 갖는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의 일대기에 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하며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행태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물리적이고 일상적인 실천들을 공간 위에 정착시키며 살고 있고 공간과의 관계가 견고할수록 자기화 된 장소를 이루는 것이다. 즉 일상성이란 자신의 내적원리로 당연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지리적 표현으로 장소라 할 수 있다. 장소는 일상성이라는 자기화의 원리를 체득한 공간적 범위를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소성'은 장소의 개별적 의미로 장소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성을 '지역의 고유한 성격(character of a area,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서의 속성(regionality)'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田村百代, 1984:41; 권정화, 1996: 13 재인용). 지역성이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아니라 무엇이 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개념 구축이라면 장소성은 시공간 위에서

기획을 통해 인식된다. 일상성은 인간 경험의 가장 일반적이며 기본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장소성이라 할 수 있다.

1) 언어의 일상성

일반적으로 장소는 지구상의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며 주로 물질적 공간이나 배경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인식이나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권영락 외, 2005: 58). 그것은 동일한 장소에 대해 개인의 기억이나 경험에 따라 장소 이미지가 달리 표출되거나 개인이 정의내리는 장소의 크기가 다양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장소는 인간을 통해서 인식되는 물질적 공간이나 배경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환경들과의 관계에서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그 결과 어떤 것은 특정 범위와 정서를 갖는 인식대상으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Heidegger가 인간을 ‘현존재(Dasein)라 규정한 것처럼 인간은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조건 혹은 공간적·시간적 처지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Relph, 김덕현 외, 2005: 147). 따라서 장소는 경험의 場이며 존재의 중심이 된다. 場이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전체구조이며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즉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험은 어떤 일은 겪어낸 ‘바로 그 곳’에서만 행위의 의도와 정당성이 설명되고 자신을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소는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설명하는 비유가 된다. 사소하고 단편적인 일상적 사건들의 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총체성을 갖는다. 비유(比喩, metaphor)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장종수 외, 2009: 102). ‘나의 장소를 말하자면...’이라고 서두를 꺼낼 때 직감적으

로 그 사람의 생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알게 된다. 즉 장소는 편린의 합을 담고 있으나 그것들의 총체이며 자체로서 이념이 되는 자기화한 언어인 것이다. Lakoff & Johnson(1980)은 비유가 발생적인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 방식과 사고 방식, 행동 방식을 반영한다고 보았다(장중수 외, 2009: 103 재인용). 즉 비유의 대상으로서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구조화한 것으로 특정한 시기 동안 개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시기로 한정되는 이유는 개인의 시공간적 특수성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며 장소는 그에 따른 의미화이기 때문이다. 장소가 개념이 아닌 이념이 되는 것도 장소를 의미화 하는 개인마다 그 정의가 다를 것이라는 개별성에 의존한다.

개인이 장소 안에 있을 때 장소는 생활세계이지만 그 장소를 벗어난 후에는 체화된 인지구조이며 구조화된 지식으로 다른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의미를 발생시키는 기반이 된다. 일례로 가장 일상적인 장소로서 집의 이미지는 평범함과 친숙함의 상징처럼 이해되지만 Stark는 '집은 매일 매일이 이전의 모든 날들에 의해 증가되는 장소(Stark, 1948: 55; Tuan, 구동희 외역, 1995: 22 재인용)'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장소의 일상성은 시간과 경험과 사건이 일정한 공간에 쌓인 의미의 누적층이면서 현재를 설명하는場이자, 비유로서 언어가 된다.

2) 스케일의 일상성

장소가 의미의 누적층이며 의미화의 틀로서 자기화의 언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소를 영토와 동일시하는 것에서 차원을 달리하여 심리적·정신적으로 자기화된 공간적 범위로 장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Relph(김덕현 외역, 2005)는 현대의 무장소성을 장소의 진정성만큼 중요하

다고 하였다. 그것은 무장소성이 현대인의 일상적 장소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세계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갖게 되는 지리적 경험은 개인이 거주하는 물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미디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양식을 좌우하며 '대중 지리학(popular geography)'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이러한 대중적 매개체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심상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송언근·김재일, 2003; 이정화, 2005; 이희상, 2007: 216 재인용). 예전에는 시간의 소요를 감수한 공간적 이동을 통해 장소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시공간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이미지화 된 장소가 원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외에서도 서적, 광고, 게임 등과 같은 대중문화는 개인 안에 축소된 지구화적 경험을 갖도록 한다. 시공간적 다양한 세계가 개인 안에서 압축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상경험은 개인의 성장속도에 따른 물리적 영역의 확장 속도를 초월하였다. 동시에 경험양식은 다층적 스케일의 양식을 띠고 있다. 물리적인 거리는 인간이 장소를 획득함에 있어 더 이상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매개된 경험(mediated experience) 혹은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이 직접적 장소 경험을 대체하고 있다. 즉 인간과 장소를 매개하는 어떤 경험이 직접적 관계로 체험되지 못하고 매체를 통하거나 특정 지배 구조에 따라 재현되는 순수하지 못하고 가공된 상태로 재현되는 것이다.

무장소성은 장소 경험의 차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직시하는 일은 장소의 차이가 다시 부각될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공간 압축과 무장소성은 새로운 장소경험을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논의를 땅에 묶여 있는 공동체와 그들의 행동범주로 특징짓고자 한다면 장소에 대한 논의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고정되고 한정된 범위의 장소 논의에서 벗어나 무장소성의 경관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시 자기화한 장소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 다시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사회-공간 구조의 특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본래 스케일은 축적, 척도를 의미하며 크기와 규모, 분석차원을 지칭한다 (최재현, 2005: 7). 하지만 공간규모에 따른 사회관계가 복잡하고 다채로워짐에 따라 스케일이라는 개념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용이한 도구적 특징을 갖는 바,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자(류재명, 2006: 33)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스케일은 사회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의 해석은 보는 주체의 설정과 사건의 범위 제한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한 현상도 누가 어떤 의미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미 해석은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장소의 문제로 치환한다면 장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장소인가, 어떤 의미로 주관화 하였는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소에 있어 스케일이란 장소의 범위를 채택하는 경계설정 문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라는 도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간주관적 객관성을 갖는다. 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설정하는 의미화가 사회적 판단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간을 의미화 하는 일은 물질들의 배열, 조직,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되므로 공간은 이미 사회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장소는 타인과의 구별에서 이루어낸 자기화의 공간이며 사적 공간이다. 하지만 개인은 사회적 규범에 속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 애초에 경험할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 장소는 본래 의미처럼 자기 의지적이기 보다는 사회 소속적이며 사회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간은 사회적 구조화를 이루는 곳이며 장소는 사회-공간 구조에 대해 일상적 의미를 이루는 곳이다. 공간이나 장소가 인간이라는 핵을 통하여 스케일의 상향 혹은 하향으로 인식되는 곳이며 사회적 구성물로 존재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같이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의 고향은 사라졌다. 그러한 장소는 우리의 인식 속에

이상향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고향이나 집이라는 고정된 영토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는 지구화라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경계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신유목민'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의 등장(조윤정, 2006; 홍원표, 2009: 146 재인용)은 유목민적 정체성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스케일은 복잡한 사회-공간 관계를 의미하므로 유목민적 정체성의 등장에 당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장소성을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기회이자 조건이 될 수 있다.

본래 스케일은 구조적 개념이다. 따라서 실체들의 집합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관계에 있어 고정된 양식이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케일은 개별인간 보다는 인간 집단의 관계 양태 또는 위계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현대세계에서 스케일은 이미 개인의 경험양식이며 내재적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케일이 직접적 체험인지 매개된 경험인지에 대한 해석은 중요한 일이 아님을 의미한다. 개인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연한 상황을 통해 다양한 스케일에 맞닥뜨리고 있으며 의미화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케일은 자신의 위치를 어떤 지리적 공간에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의미화 하는 관점이다. 국가나 지역과 같은 스케일의 실체들은 의미의 범위에 따라 구성되는 상상적 공동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케일의 위계성 혹은 공간적 규모가 경험의 진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층적 스케일의 공존이 만들어 낸 물개성적 경관과 텍스트, 미디어는 새로운 공간적 질서와 패턴(공간성)을 생성시켜야 하는 의무가 일상적 장소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현재(2009)에 따라 스케일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한 장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스케일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 주여성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지구화나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제 3세계의

여성 노동력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결혼을 해석하였다. 제 3세계 여성은 경제적 구조에 따라 최하층 계급으로 여겨지며 자본, 인종, 가부장적 논리에 의해 식민화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게다가 여성들의 이주와 정주생활 또한 본국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어느 쪽에도 수용되지 못 하는 '사이 공간', '탈 영토화', '이중적 경계성'으로 규정되어 왔다. 사회-공간 구조가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다.

반면 그의 연구는 기존의 결과와는 다르게 이주 여성이 정주과정에서 그들 나름의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위치는 지리적 지역(area)으로서의 지역(region)이 아니다. 공간에 뻗어있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에서 교차지점으로 파악된다(Messy, 1994; 이현재, 2009: 17 재인용). 그들을 규정짓는 기존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은 오히려 그들이 장소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주여성의 장소란 정착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며 반복적 실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을 둘러싼 지구화나 시장경제체제, 제3세계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자기화 된 장소를 구성하는 데 제약이 되기보다는 적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장소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시간과 공간의 거리는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없으며 엄격히 구분된 공간적 범위는 개념상의 문제일 뿐, 실제적으로는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생산되는 범위임을 의미한다(주문희, 2009: 242). 비록 그들의 국제결혼이 사회적·경제적 차원의 구조에 의한 것이든 또는 환경변화의 기회를 찾아 선택을 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로써 장소는 한정되고 구분된 영역으로서의 영토나 객관적 지표를 갖는 물리적 위치의 공간과는 구별된다. 장소는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해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일상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공간성을 생성시키는 시초로 작용하고 있다.

장소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 경험과 실천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냄으로써 영역의 경계를 달리하는 과정적 성격을 갖는다. 장소는 영역화 하는 경계의 선상에 있다. 특별함이 없는 일상의 무심함 속에서 인간 행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을 다이어그램의 표상으로 가정한다면 모든 영역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에 겹쳐지고 있다. 표상의 시점을 현재에 두고 보았을 때는 장소가 될 것이며 일생으로 확대시켰을 때는 삶의 경로가 될 것이다.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모든 영역은 겹침과 교차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개인의 장소가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듯 사회·공간적 관계 또한 항상 변하게 된다. 이주여성을 지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지만 장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장소를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

다양한 스케일의 장소성은 문제 해결 능력이며 사회관계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공간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이주여성의 본국과 이주국 사이의 정체성을 이미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위치를 한정짓는다. 하지만 장소의 관점에서는 상반되고 대치될 수 있는 정체성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성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행위는 본국과 이주국의 정체성이 교차 혹은 혼합되기도 하며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 장소는 스케일의 관점을 취하면서 인간이 사회적 관계와 구조에 대해 능동적 역할을 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장소는 현재를 바탕으로 구체적 행위(사회적 역할)를 통해 관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스케일의 장소에서는 세계적인 사회·경제 체제나 지배담론이 장소 구축에 있어 무관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장애도 될 수 없다. 장소는 사회적 구성물이면서 동시에 일상적 행위와 관계를 구축하는 곳으로 구조나 담론과는 다른 주관적 의미를 담아내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소가 강조되고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에 따라 세계화와 함께 지역화가 강화되고 있다. 동일성의 추구는 차이의 중요성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분리된 영역

으로 인식되던 다른 차원의 장소는 개인의 일상 속 행위와 실천을 통하여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상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고 있으므로 어느 한 차원에 구속된 경험이란 개념 상에서만 존재한다. 각각의 스케일은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가 아닌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생산되는 공간적 범위로 다른 장의 지리적 스케일과 상호교차하며, 주제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횡단'가능한 것이다(주문희, 2009: 242). 이는 스케일이 갖는 공간의 위계성 만큼 스케일의 의미 구조는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임을 말해준다. 스케일은 단편적이고 고정된 개념을 탈피하여,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생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현주, 2006: 39). 따라서 스케일의 변동과 생성은 다양한 주체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관계의 재편을 동반한다(정현주, 2006: 39).

결국 스케일의 장소는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되묻는 과정으로 현재의 영역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공간은 무한히 우주적인 것에서 지극히 미세한 것에 이르는 여러 관계의 복잡성과 복잡성, 맞물림의 산물로 언제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Massey, 1999: 283; Vallentine, 박경환 역, 2009: 15 재인용). 즉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주체와 방식의 문제는 공간의 의미를 생성하며 장소와 장소간의 상호관입에 따른 주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작은 범위로서의 신체로부터 집, 공동체, 제도, 거리, 도시, 촌락, 민족은 스케일의 변화¹⁾를 의미한다. 스케일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차원적 사회-공간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펼쳐 보이는 '개념적 장치(이현재, 2009)'이자, '장소의 다양한 켜(이현재, 2009)'인 것이다.

다양한 빛깔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프리즘은 자체적으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산되고 굴절되어야만

1) Valentine(2009, 박경환 역)의 저서 「SPACE AND SOCIETY, 사회지리학」은 위와 같은 스케일이 각각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내용구조를 이루고 있다(주문희, 2009: 242).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사회-공간 경험이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의미를 담게 되는 이유이다. 개인에게 내재된 경험은 의미화 전에는 수많은 스케일의 가능성을 갖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선호하거나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스케일을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프리즘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색깔에 대해 선호하는 빛깔이 있다는 것은 ‘선택’으로 이어지며 표출을 의미한다. 의미화 된 경험, 선택된 경험이 그 사람의 장소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스케일은 다차원적 사회-공간 경험을 의미하며 다양한 장소의 존재 가능성과 장소 경계의 설정 및 역동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장소성으로 둘러싸인 현대인들은 다양한 장소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으나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어떤 색깔로 의미화 할 것인가라는 경계 설정의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다양한 장소의 존재는 다양한 장소 주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장소들 간의 차이(Smith, 1993: 101; 이현재, 2009: 19 재인용)가 보장되는 것이며 일상이라는 시공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상황적이고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리하면 스케일은 인간의 일상 경험이 확대됨에 따라 공간적 측면의 고정된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이 장소 주체로서 발휘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 각 차원의 스케일은 사회적 관계의 교차지점으로 장소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어떤 스케일의 의미를 실천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로운 공간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제공한다.

3) 네트워크의 일상성

스케일에 대한 사회적 재정의와 함께 스케일을 실천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로 네트워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는 장소나 스케일에 고착되지 않은 연속적 공간성을 다루는 데 적합하며 자기 조절적이

며, 협동적, 비계층적, 유연적인 공간성과 계층성 및 시장성 등을 넘어서는 담론으로서의 비중을 가진다(최재현, 2005: 7). 이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장소 및 스케일과는 다른 개념적 특징을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장소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스케일을 실천하는 것의 자연스러움과 당위성을 네트워크를 통해 찾고자 한다. 스케일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공간적 활동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관계의 연관성과 상호의존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선 논의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스케일을 다루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소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세계, 국가, 지역, 공동체, 집과 같은 각각의 스케일은 특정한 사회-공간적 활동을 생각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가령 집은 가족관계의 위치이고 공동체는 근린활동의 위치로 파악할 수 있다(Vallentine, 박경환, 2009: 19). 특히 인종, 계급, 민족 등에 있어 지리적 스케일은 차이를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기 보다는 정체성을 지리적으로 고정시키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McCormack, 2009: 134). 정체성의 지리적 고정이란, 특정 활동들을 한정된 지리적 범위에 고정시키고 양식화 하는 과정을 말하며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과 같이 비타협적이고 배제적인 장소정체성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케일은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되고, 사회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리적 구조에 의해 생산된다(Smith, 1993: 97; Vallentine, 박경환, 2009: 19 재인용). 분절된 차원의 스케일의 개념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면 스케일은 독립된 것이 아닌 관계의 연결과 공간의 상호의존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현대세계의 일상성은 네트워크적 관계를 통해 세계적 경험에서 근린 경험에 이르기까지 직접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네트워크는 세계화의 담론에서 사건의 발생과 이동이 복잡하고 동시적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위계가 없는 연결망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스케일이 공간구조와 활동양식의 질적 다름, 즉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경우 스케일과 네트워크는 의미상 대척점에 있거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하

지만 Latour, callon, Law 등이 제시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이런 두 개념의 상충되는 지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보여진다(최재현, 2005: 8). 행위자(actancy)와 관련하여 행위자성(agency)은 통일적이고 의식적이며 합리적인 ‘주체성’ 개념을 대신하여 기존의 구조나 정체성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자의 결정, 반성, 적응, 거부, 상상, 교섭의 힘과 능력을 포괄한다(이현재, 2009: 22). 즉 행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네트워크적인 세계를 전제로’ 그의 지리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공간 구조는 의미화 하는 능력에 의해 변화 가능한 공간 범위가 된다. 또한 장소는 다차원의 스케일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위에서 횡단하는 역동적인 지점이 된다.

네트워크는 인간이 사회-공간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무대가 되거나 실천 자체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공간 구조적 특징이 스케일을 횡단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스케일을 연결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연결망이지만 구성요소와 연계간의 구체적인 지리적 짜임새나 강도, 범위에 따라 일정한 공간성(spatiality)을 가지며, 가변적이며 유동적 상태를 지속하는 특성을 지닌다(최재현, 2005: 8). 이는 행위자가 활동하는 무대로서 네트워크에서는 거리나 근접성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공간조직에 있어 중심과 주변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규모의 범위가 유동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위자는 네트워크가 공간성을 갖게 하는 구체적 활동요소로서 작용한다. 인간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공간의 자기화(Saez, 강일성 역, 1989: 158)’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곳이 장소이다. 게다가 장소는 가장 직접적이며 작은 스케일로서 ‘몸’을 바탕으로 하며 경험이 새겨지는 장이므로 장소는 사회-공간 관계에 대해 의미화를 이루는 중심이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스케일은 봉쇄와 배제뿐만 아니라 팽창과 포섭의 수단으로 작동한다(Smith, 1993; Vallentine, 박경환, 2009: 20 재인용). 네트워

크는 고속도로와 같은 일방향에서 수직적, 수평적인 다방향을 넘어 다차원적으로 다른 공간과 연결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가 공간 간의 사회적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역 등의 일정한 공간 스케일을 통해서 이해되던 주체들이 다차원(multi-dimensionality)의 네트워크로 인해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들이 몸담고 있는 영역과 그로부터 구축되는 정체성이 불안정한 것이 된다. 사회적 관계의 불안정성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케일을 동반하는 네트워크는 발생을 넘어선 돌발의 스텝과 함께 우연적인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알려주며 어떤 방향으로 연결될지 예측불가능성을 띠는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특징을 확인하는 일은 공간과 집단에게 해체의 불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간이 주체와 비주체간의 구분되는 범위이거나 집합이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희박함을 알기 위한 것이다. 장소는 공간을 자기화 하는 과정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다수의 개인들이 지배적인 사회-공간구조로부터 자신을 설명하고 의도를 영역화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개별 인간의 정체성은 혼종적일 수밖에 없다. 다차원적 스케일의 공간을 자기화 해야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민이나 이주여성 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에서 정체성의 변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특화된 경우 네트워크의 공간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주체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행을 하는 일은 공간적 경계나 차원을 ‘횡단’하거나 ‘스케일 뛰어넘기(jumping scales)(Smith, 1993; Vallentine, 박경환, 2009: 20 재인용)’를 하는 것이 된다. 즉 장소라는 것은 공간의 연속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네트워크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최재현, 2005: 7). 또한 장소는 네트워크라는 흐름의 공간에서 의도나 의미가 집중되는 곳으로 이해되면서 인간은 자기 조절성을 갖춘 존재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장소를 건설하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되었다. 장소는 공간의 생산과 형성방식에 대한 의미부여의 중심이자 생성물이며 복합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스케일이나 네트워크는 의미 부여와 관계 설정의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현대세계라는 시공간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스케일과 네트워크의 일상성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소박한 지리적 표현이었던 장소는 다양성과 개별성의 드러냄이라는 은유가 되었으며 스케일과 네트워크는 경험이 되었다. 더 이상 장소를 규정짓는 일은 '어디'에 국한된 문제라 볼 수 없다. 장소는 이미 무경계성의 영역이며 인간이 존재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곳 자체일 뿐, 거리나 근접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소는 스케일과 네트워크의 관계성과 의미화를 국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Dilthey는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와 시간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의미와 의의가 다르다는 '시공간적 질서에서의 국지화(Lokalisierung)'를 주장하였다(Dilthey, 2002: 79; 권영락 외, 2005: 57-58 재인용). 장소는 개인의 의미와 의도를 영역화 하는 과정으로 삶의 직접성을 실천한다. 즉 의미와 의도는 특정 사회의 시공간적 질서에 기반하는 것이며 삶의 직접성을 실천하는 것은 국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소는 개인의 경험을 신체를 통한 생성하고 강렬한 체험으로만 한정하고 개인화시키지 않는다. Raban의 『부드러운 도시』(Harvey, 구동회 외역, 1994: 21)는 현대 세계의 사회-공간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부드러운'은 강렬한 느낌의 공간성을 대체하는 기호와 이미지의 끊임없는 생산으로 공간성이 빠르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공간성은 지리적 경계에 의한 패턴이나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 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호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스케일과 네트워크는 약호화 된 공간성을 특정 사회의 집단적 속성으로 설명해주는 개념이기도 하다. 공간적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분명한 영역성으로 존

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소 경험은 사회-공간적 관계를 통해 보다 일반적이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간이 장소에 맥락을 부여하고 장소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장소는 기호화된 공간에서 차이를 만들어냄으로써 주관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부드러워진 공간 속에서 개별 인간의 생생한 경험은 공간을 장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공간 구조의 필요를 중용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장소라는 관점에서 스케일과 네트워크는 장소를 만들어낼 경계가 넓어졌음을 가리키며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이루어내야 함을 주지시킨다. 차이를 지향하는 의도와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조직이라는 억압 속에서 국지화되기 보다는 공간화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Harvey, 구동회 외역, 2009: 255). 이에 스케일과 네트워크의 일상적 장소성은 개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의 동질성의 경향으로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을 둘러싼 집단에서 구별 짓는 차이로 탐색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대의 장소는 차이를 갖는 다양한 타자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그들이 인식하는 공간에 대한 의미화를 수용해야하는 필요에 직면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 영역화

1) 동일성과 장소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인간과 장소의 상호작용, 공간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근대사회의 장소 정체성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안정적이었던 만큼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을 띠었다. 반면 근현대성(Modernity)은 공간적 제약의 붕괴와 대량 생산체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경제구조, 이성적 판단을 전제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보편주의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

치·경제적 민주주의를 반영한다(임병조 외, 2007: 590). Heidegger(1960)에 의해 실존을 위한 합성적 과정(조현주, 2008: 733)으로 이해되었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의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체성에 대한 범위는 개인적 동일성 자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질서는 공간장벽의 붕괴를 바탕으로 지역마다 존재하는 언어, 종교, 민족의 기타 사회적 차이들을 생산을 위한 경제적 우위를 갖춘 요소들로 변형하고 재구성하였다(Harvey, 박영민 역, 1995). 이에 개인의 개별성이나 독자성으로 이해되던 정체성(identity²⁾)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 더욱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임병조 외, 2007: 587). 어떤 것의 정체성(identity of)은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동일성과 통일성을 말한다(Relph, 구동회 외역, 2005: 108). 또한 Erikson(1969)은 정체성을 자신 내에서의 일관된 동일성과 타인들과 공유하는 것 양자를 모두 의미한다고 하여 타 객체들과의 특성상의 공유에 비중을 두고 있다(이경훈 외, 1993; 조현주, 2008: 733 재인용).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할 수 있는 궁극적 기준으로서 개별성으로 해석되던 정체성에서 개체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비중이 옮겨간 것이다. 개인의 성질을 규명하는 일은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가?’이며 개인의 내적 동일성은 집단의 질적 동일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임병조 외, 2007: 587).

따라서 장소는 개인의 내적 동일성과 통일성, 외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유성을 갖는 실체이다. 조현주(2008)에 의하면 정체성의 공통적 정의는 ‘자기 정의(self definition)’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요소간의 유사성과 연속성을 가짐으로써 성립되며 통일성, 공유성, 전체성의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개체로서의 일관된 동일성, 타인들과 공유된 특성은 외관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된 정체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때 개체의 특성은 다양

2) identity의 기원은 라틴어인 identitas, identicus이며 idem 즉 동일하다는 뜻에 뿌리를 두고 있다(조현주, 2008: 733).

하게 해석되어 국가, 집단, 학교, 특정지역, 커뮤니티, 제품 등으로 확장될 수 있고 각각의 정체성을 전체성으로 작동시킨다고 하였다.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장소는 인간이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전체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세계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속한 집단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따를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절된 공간이 장소의 개체성을 확보해주었다면 스케일과 네트워크로 설명되는 공간성은 장소에 맥락성을 부여한다. 개인은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적 및 생태적 프로세스에 흘러들어 간다(Adams, 1995: 269; 권정화, 1996: 47 재인용). 바로 사회적 관계 형성이 공간과 장소를 만드는 바탕이 되며 개인의 정체성은 공유성과 통일성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공간적 관계가 중요해진 것은 사회경험과 장소경험이 이전 사회에 비해 분리된 경험이 되어버린 까닭에 있을 것이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순환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 되었고 미래는 계절이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대에서 이어받은 방식에 삶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있을 뿐이었다(강신주, 2010: 217). 따라서 이 시대의 사회적 관계는 이미 울타리 안의 환경³⁾(이석환 외, 1997: 173)과 같았으므로 사회경험과 장소 경험은 분리된 것이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공간의 경계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의해 희미해졌으며 오히려 스케일과 네트워크에 따라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확장되었다. 장소는 영토적 행태에서 벗어나

3) 황기원(1995: 46-47)에 의하면 장소와 환경과의 관계는 차이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環境은 어떤 것을 “둘러싼다는 뜻”이며 “그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거나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울타리가 없이 꼭 짜여진 생태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사람들이 환경을 보는 시각, 즉 환경관에 대하여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울타리가 없는 삼라만상이고 둘째는 반대로 환경을 울 안으로 보는 것이며, 셋째는 환경을 울 밖으로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시각 중 두 번째 환경관인 ‘환경을 울타리 안으로 보는 시각’에 설 때, 그것은 바로 장소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장소는 울타리 안에 고립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장소간의 관계 속에서 존립의 가치를 발휘하므로 외부와의 연결가능성을 항상 전제한다.

‘그들이 상상하는 양식에 의해(Harvey, 박영민 역, 1995: 52)’ 가변적이며 비 공간적인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 구축되는 것이다. 장소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 동질성을 얻으려는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은 공간과 장소가 발휘하는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일정한 영역성을 지니는 범위이다. Sack(1993)에 의하면 공간과 장소의 내부에는 이것을 지배하는 규범 혹은 규칙이 존재하며 공간성이란 영역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을 지칭한다(최재현, 2005: 10 재인용). 사회적 힘은 지역을 내적 동질성을 갖는 공간적 범위로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지역 형성에 있어 중심은 경험을 통한 인간의 역할에 있다(최재현, 2005: 11). 인간은 개체임과 동시에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며 타인들과 공유하게 되는 경험은 공간적 범위를 걸쳐 나타나고 이러한 공유 경험이 바로 장소와 장소 정체성이며 지역과 공동체의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권정화, 1996: 87). 이는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어떤 범위에 귀속감을 부여하고 동일시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정체성의 내적 동질성과 외적 공유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리적 자아(geographical self)⁴⁾(김정아, 2005: 35)를 어디에 둘 것인가로 귀결된다. 따라서 장소 정체성은 개체 동일성에 중점을 두는 지리적 범위이면서 개별적인 정체성이 공유하는 사회적 응집력의 지리적 범위까지 확장하여 이해해야 한다. 지리적 공간은 단순한 객관적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들이 얹혀있는 사회적 경험으로 간주(Vallentine, 박경환 역, 2009: 13)되며 인간은 의미화 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은 부분과 전체의 인식 속에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인간의 집단적 삶의 맥락으로 인식하는 시각(권정화, 1996: 42)이라 할 수 있다. 장소는 다양한 인간이 경험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공간

4) 지리적 자아(geographical self)란 일정한 영역과의 동일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적’ 과정으로 이해된다(Cloke et al., 1991: 70; Vallentine, 박경환 역, 2009: 13 재인용). 다양한 관계의 스케일이 공간상에 펼쳐지는 과정을 개인은 일상 생활을 통해 다시 구성하고 있으므로 생활공간은 인간 활동의 중심부에 존재한다(Saez, 강일선 역, 1989: 161). 따라서 장소는 인간 정체성, 그 자체이며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자 총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와 저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 또는 우리와 타인이라는 구분은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장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의 경계가 달라지며 상황과 관계를 달리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영역이나 영토처럼 이미 확정된 공간적 범위가 아니며 어떤 범위에 걸쳐 동일성을 이룰 것인가에 따른 영역화(領域化)로 인식된다. 이는 시공간과 사회적 관계를 가르는 기준이며 내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자기화(自己化)하는 공간이 된다. 즉 완결체이기 보다는 전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장소 경험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기도 하는 상호작용적 측면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장소를 통한 정체성의 획득은 다른 장소나 지역과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공간적 관계와 인생의 여러 단계를 통해 일어나는 시간의 흐름에 놓여 있으나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준다. 내부자로서의 장소경험은 여러 관계를 고려한 공간적 실체로 존재하며 이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Saez, 강일선 역, 1989: 171) 항상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자기화한 공간으로서 장소를 갖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어떤 공간적 실체를 장소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끊임 없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장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된다.

2) 사회적 구조와 장소

모든 사람은 특정한 사회에서 태어나고 적응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의 내

면에는 특정한 사회의 행동 원칙이 각인되어 무의식적인 사회적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내면화 된 습관적 구조는 개인이 미래에 행위 할 성향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구조화된 구조이자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를 뜻한다(강신주, 2010: 217).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위한 중심으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으며 장소를 형성하여 자신을 환경과 구별하는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그리 자유로울 수 없다. 아비투스는 특정 사회의 물질적 존재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장소를 그것이 속한 사회 속에서 의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이미 자신에 구조화된 구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장소를 만들기 보다는 아비투스를 내면화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집단화된 의미를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다.

동질성을 추구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장소 혹은 자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깃든 관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즉 동일성은 차이를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며 다양한 타자 그리고 사건들과의 우발적 마주침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강신주, 2010: 206-207). 동일성을 차이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개인의 동일성이 변화무쌍한 사회적 자극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놓인 데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라는 생활환경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이 확장되었으며 시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이미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공간은 불안정하며 그 곳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적응시켜야 한다. 따라서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감각적 경험 이외에도 저 너머의 공간에도 인식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각 밖에 존재하는 시공간은 ‘가능성의’ 미래(강신주, 2010: 222)를 인식하게 한다.

가능성의 미래는 변화와 선택의 가능성을 내포한 시간으로 준비와 계획하는 생활방식을 요구한다. 자신의 내면적 구조로서 동일성을 고수하기 보다는 다가올 자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구조화하기 위한’ 동일성이 도시인과 자본주의 사회에 요청되는 덕목이다. Tournier의 소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1967; 강신주, 2010: 205-305 재인용)⁵⁾에 등장하는 로빈슨은 자본주의 시대의 인간이 개별성을 획득하는 것과 사회구조 사이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그는 표류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중, 달력을 정립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간을 되찾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다. 달력을 제정한 일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생활을 위한 약속된 시간으로 보편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인 시간’이 됨을 말한다. 즉 객관적인 시간의 이면에는 그 사회의 물질 특성을 반영한 아비투스⁶⁾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적 시간은 ‘체험된 시간’과 대조되는 의미로 이미 짜여진 시간에 맞춰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시간이란 분업화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람들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갈등을 조절하기 위한 시간이라 볼 수 있다. 로빈슨은 시간의 재정립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사회의 아비투스를 그 섬에 재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섬의 이름을 ‘스페란차⁶⁾’라 명명하였다. 객관적 시간을 정립하는 것은 자본주의 아비투스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로빈슨 자신의 존재에 희망을 불러올 만큼 의미 있다. 또한 노동과 임금 체계를 부활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아비투스⁶⁾와 가능성의 미래가 ‘축재(蓄財)’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객관적 시간과 노동과 화폐는 불확정성의 공간을 대비하고 계획하게 해주면

5) 이 소설은 다니엘 디포(Daniel Defoe, 1660~1731)가 지은 『로빈슨 쿠루소(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of York)』를 소설가 Michel Tournier가 패러디한 것이다. 이는 당시 타자에 대한 프랑스의 지적인 숙고를 반영한 것으로 1967년, 소설이 출판된 같은 해에 들뢰즈는 소설에서 표현된 타자론에 관한 철학 평론을 발표하였다(강신주, 2010: 207-208).

6) ‘희망’이라는 뜻의 스페인어(강신주, 2010: 207-208).

서 미래의 시간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다. 공간을 장소화하는 것이 화폐라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본래 화폐는 어떤 것을 교환하는 기능을 하며 그 쓰임이 광범위하여 편의성을 갖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지리적 팽창을 통해 소비시장을 개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공간관계들 속에 새로운 장소를 세우곤 하였다. 새로운 장소 네트워크들은 새로운 영토분업이나 사람들과 노동력의 집중, 새로운 자원 및 시장개척 따위의 행위들을 불러일으켰다.

화폐가 상품의 생산이나 교환가능성을 조절하는 역할에서 인간과 인간의 행위, 장소와 장소의 조직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화폐는 확정되지 않은 용도를 예정하게 해주고 사용의 무한정성을 수량화하게 해준다. 즉 축재할 가치가 있는 예정된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래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통제를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축재하는 사람은 미래를 실현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장소 건설은 화폐가 갖는 미래에 대한 예정 가능성을 통해 보다 역동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새로운 교통 및 통신 시스템으로 공간 관계들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장소 건설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공간패턴의 역동성은 사회-공간적 측면에서의 사회변동(social change)을 의미하며 하나의 지배적인 사회조직양식이 다른 양식으로 대체되는 것이다(Hudson, 손명철 편역, 1994: 126). 사회조직 양식을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할 때 아비투스라 한다면 새로운 공간패턴은 삶의 전 분야(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며 새로운 지리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의 공간성(spatiality of society)(Soja, 1983; Hudson, 손명철 편역, 1994: 130 재인용)’에는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와 공간적 패턴 얹혀 있으며 시간과 인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동시에 공간적 존재이며, 사회는 공간적으로 생산되고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 된다⁷⁾.

장소는 일상적 삶의 초점으로 사회적 구조와 공간적 패턴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장소간의 상호의존과 갈등, 경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구조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공간적 패턴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구조나 패턴과 같이 공간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으로 성립시키던 정형화된 관점들이 인간과 그들의 행위를 주목함에 따라 ‘사회의 공간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공간성은 고정되고 단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독특한 시공간적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간은 사회적 집단과 행위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사회변동에 따른 공간적 기록들에 대해 제대로 정의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시간의 범위라는 전제에서 ‘혼돈스러운 범주(chaotic categories)(Hudson, 손명철 편역, 1994: 130)’ 그 자체로서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장소는 사회적 구성물이므로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간의 질서, 사회-공간적 관계가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장소는 이미 구조화된 프로세스로부터 재생산된 의미이기도 하지만 구조화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해 수많은 인과관계를 제공하며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를 구성하는 것은 화폐의 보편적 가능성을 이용하여 사회-공간관계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화폐는 기존의 사회-공간관계들을 새롭게 구성하여 차이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힘을 갖는다. ‘화폐 민주주의(Harvey, 박영민 역, 1995: 55)’는 타인에 대한 관계가 범지구적이며 보편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차이’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스케일과 성향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공간 관계들에 대해 자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회-공간적 경계를 넘나

7) ‘시간-공간-사회의 삼변증법(trialectics)’를 제창한 Soja와 Harvey의 ‘역사지리유물론’, 일상적인 사회생활과의 연관성 속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Lefebvre의 ‘사회공간론’ 등이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의들이다(이무용, 2005: 32).

들며 타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이제 완전히 물적·영토적 조건에서 벗어나 차이와 타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영토적 행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일이 장소를 구성하는 일이 될 것이므로 장소는 계속해서 변화무쌍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성격에 있어 사회적 구조를 재현하는 것이 될지, 새로운 구조를 생성하는 것이 될지는 잠정적으로 여겨진다. 사회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지속적인 행위와 의도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은 새로운 장소를 구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것이다. 이는 장소가 사회적 질서 속에 ‘담론’으로 구축되는 일을 말하며 하나의 사회과정(social process)으로 탐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차이와 장소

장소를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 동질성은 개인의 정체성을 어떤 사회적 범위 안에 둘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에 따라 화폐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동질성으로 포섭하는 것만큼 차이로 구분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앞선 논의에서와 같이 화폐는 타인이 존재를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며 기존의 구조 속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간이 동질적이면서 동시에 이질적일 수도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질성은 현대세계가 장소 없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장소의 의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Saez, 강일선 역, 1989: 175). 동일성은 동질성과 이질성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구성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장소 동일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내재된 이질성들을 새로운 구조의 동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간과 장소의 다름, 나와 타자와의 다름이

라는 외형적 구분은 인간 개체라는 동일성에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를 실천하는 문제는 '차이'에 대한 인식론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차이는 그 때마다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현실의 모든 존재에 잠재해 있는 발전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장소의 진정성은 정체성에 대한 '차이 자체'로의 전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인간은 정체성을 재범주화하며 차이를 실천할 것이며 장소는 자기화 된 영역에 가장 근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장소의 차이를 추상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에 관한 인식론적 논의는 경험적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내재적 당위성을 장소에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장소의 발견을 위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

차이는 존재의 유연성을 전제로 내적 전체성을 이루기 위한 내적 차이를 실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체성은 완결된 체계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을 통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항상 '현재진행형(박영옥, 2009: 61)'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 내부에는 통합과 일탈이 공존하며 상반된 두 요소를 전체성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구성하는 방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Deleuze에 의하면 일련의 체계를 갖는 모든 존재는 기계로 간주할 수 있다. 나뭇의 체계를 갖으며 어떤 기능을 드러냄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기계는 일종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기계와 남성 기계는 여성으로 기능하는 장치와 남성으로 기능하는 장치가 다른 체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 기계 안에는 남성성만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성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여성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성 기계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은 기계가 기능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남성은 백인이거나 청년실업자일 수도 있으며 아들이고 남편일 수도 있다. 이

에 따라 한 인간의 존재는 그가 실천하는 역할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기계라는 기능을 갖는 장치는 존재가 갖는 여러 기능들을 절단하여 그 본질을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절단을 통해 드러나는 기계는 획일적인 체계성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과의 연결을 함축한다. 존재하는 자체를 흐름이라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존재는 전체성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절단이 필요한 이치이다. 즉 기계에서의 절단과 연결은 분리된 과정이 아닌 하나의 통합적인 과정이다(박영욱, 2009: 115). 또한 동시에 절단은 흐름이 있어야만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계와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 존재는 엄격한 체계가 아닌 다른 존재와의 연결을 통해 구별되는 유연한 체계인 것이다. 즉 개별성은 필연적인 일자와의 대응이 아닌 존재가 갖는 무수한 잠재성만큼이나 다자와의 대응이 가능하며 잠재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절단과 연결이라는 인식은 전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개별성이며 차이를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존재는 절단된 기능 자체로서 완결성과 합목적성의 내적원리를 갖는다. 절단이라는 유연한 구분의 상태는 장소를 인식하는 데 있어 인간과 사회-공간 구조와의 구분이기도 하지만 관계 전후를 통해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분과 전체라는 내용적 인식은 장소와 그보다 더 큰 권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이전과 이후의 장소라는 영역이 갖는 인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Gadamer의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이며 Goldman에 의하면 변증법적 총체성으로 마치 책읽기와 같은 인식작용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권정화, 1996: 41). 즉 장소에 대한 물음은 장소를 이루는 사회-공간에 대한 물음이며 이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장소로 돌아오는 ‘앎의 순환(Zirkel des Wissens)(강돈구, 1988: 44)’을 따르는 것이다. 앎의 최초와 최종적인 것이 자기내적 순환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관계의 연관성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장소인식에 대한 계속적인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소는 다른 장소간의 동태적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장소인식은 항상 변화한다. 장소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완성시키고 체계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구분과 통합을 내포한다.

이에 대해 절단과 연결이 방법적 차이를 추구한다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인식은 내용적 차이를 수행하며 내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소는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성되는 단계마다 장소는 완결된 개별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사회-공간적 관계에서 비롯된 자아와 타자의 관계, 장소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전통적인 관념으로서 ‘장소’에 대한 생각이 다시 정립될 필요성을 준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장소는 ‘거주(dwelling)를 위한 곳으로 다른 곳과 구별되는 인간 개인만을 위한 실존의 공간이었다. Heidegger가 정체성을 다른 것과 구분되는 동일성과 통일성으로 정의한 것에 의하면 장소는 인간에게 정체성을 이루게 하는 공간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집이나 고향은 다른 사회적 공간과는 달리 안식과 편안함, 다시 개인적 특질을 회복할 수 있는 충전의 장소로서 ‘되돌아 갈 수 있는’ 회귀의 방향성을 갖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을 의미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객관적인 미래로의 시간에 대해 장소는 한 개인의 원래의 자리이며 모든 관계의 시작, 즉 본향(本郷)이다. 마을의 설촌과 더불어 어귀에 심겨진 팽나무의 두터운 ‘뿌리내림’이 무성한 가지만큼 계절의 순환을 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장소란 한 곳에 뿌리내림으로 장소 경험들이 시간적으로 심화되어 영적통합을 이루어내는 힘(Harvey, 박영민 역, 1995: 44-45)이다. 하지만 장소에 대한 이런 깨달음들은 장소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인식되었다.

‘어떤 곳이 장소일 수 있느냐’라는 장소 신뢰성의 문제가 모던하다는 표현(Harvey, 박영민 역, 1995: 45)은 근현대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공간 장벽의 파괴로 인해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이 갖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도시화에 대비되는 이분법의 쌍으

로 존재한다. 체험적 시간을 보내며 의미를 만드는 장소경험과는 분리되었으며 무장소성의 장소경험으로 특징적인 타자성을 만날 수 없는 데에 따라 장소에 대한 향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소를 집이나 고향처럼 ‘정주’하며 사는 곳과 동일시하는 일은 이동이 일상적인 현대사회에 장소에 대한 박탈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장소는 이미 물적, 영토적 조건을 벗어나 상상과 언어의 역할에 기대고 있으며 다양한 상상의 공동체가 이를 증명한다. 이에 Harvey(박영민 역, 1995: 52)는 전통적 관점의 장소는 장소에 대한 단지 하나의 있을 법한 상상일 뿐이며 장소는 오직 물질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거주와 뿌리내림이라는 장소 정체성은 장소 자체에 대한 정의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과 동일시되는 장소에 소속되고 싶은 삶의 애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합할 듯하다. 따라서 장소는 타자를 통해 자아 인식을 발견하는 공간인 동시에 자신이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또한 이미 주어진 물적 조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물적 조건(장소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는 생성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장소는 장소라는 표상에서 벗어날 때에만 인간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삶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

따라서 무장소성이라는 현대인의 장소성을 사회-공간적 관계에 따라 각각의 장소가 갖는 삶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독특한 경관이나 특수한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한 고유성으로 장소를 한정짓는 것에서 사회-공간적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소의 내적 원리를 재정립하는 것으로서 장소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장소의 잠재성은 장소를 둘러싼 사회-공간의 외부적 관계만큼이나 다양하다. 모든 장소의 자기 인식 및 자기화를 이루는 과정은 매끈한 공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상이 불가하다(박영욱, 2009: 172). 하지만 장소 가변성은 장소 잠재성을 의미하며 수적 다양성과 질적 심화를 보여줄 수 있다.

이는 Simmel(1903; 강신주, 2010: 93)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

는 특수성(particularity)과 비교 불가능성(incomparability)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장소를 소비의 차원으로 보는 것은 사회-공간적 구조의 틀 속에서 장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세계의 자본주의화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 이식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차이성을 담을 수가 없다. 장소에 대한 인식은 인간 실존 방식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로 소비가 아닌 생산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장소는, Simmel의 표현에 따른다면, ‘질적 개인주의’의 표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장소를 건설하는 일은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는 다른 장소의 관계 속에서 주변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내부적 동일성을 이루는 것이 된다. 외부와의 연결가능성을 전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외부와 내부는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인간을 둘러싸는 환경적 특질을 갖고 있으나 다른 장소간의 동태적인 상황(이석환 외, 1997: 174)을 통해 영역화 하는 곳으로 장소 외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2. 장소와 장소 정체성

일상성과 영역화를 바탕으로 살펴 본 장소 속성은 인간이 공간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공간에 대한 개별적인 의미 부여와 일상적 삶에 대한 현상적 이해의 중요성은 인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정체성이 자신이 누구인가와 관련된 문제라면 장소는 자신의 정체성을 귀속시킬 수 있는 지리적 위치로 정의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장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장소는 자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며 삶 자체로 존재하는 지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는 지표상의 한 지점이며(Castree, 2003: 165; 남호엽, 2005: 200 재인용) 사소한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사적공간으로 독특한 상황을 지닌 삶의 연

를 속에서 개인의 공간 경험이 누적되는 곳이다(최재현, 2005: 8). 그리고 인간의 짧은 생애를 아우를 때 공간적·비공간적 기획의 실현과 좌절 경험은 의미부여 과정에서 장소의 확장과 함께 인식의 확장을 가져와 보다 큰 스케일의 공간과 경계의 존재를 깨닫게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권정화, 1997a: 10). 즉 장소는 개별적 인간을 통해 위치를 갖는 공간이고 시공간적으로 설명되는 경험이며 이해와 경험의 성장으로 존재하는 '지금, 여기'이다.

둘째, 장소는 시공간적 생활양식의 질적 변화에 따라 관계의 직접성을 인식하는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 세계의 흐름은 인간 경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은 경험 양식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에 따른 존재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Held *et al.*(1999)는 세계화를 경제적 관계의 범역확대(stretching)와 강도심화(intensification)로 보았다. 따라서 지방화, 국가화, 지역화, 국제화, 지구화의 용어는 기능적 통합의 관점에서 공간적 스케일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수평적 활동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심층통합(deep intergration)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재현, 2005: 6 재인용).

더불어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과정이나 노동시장, 제품, 소비 패턴의 유연성에 그 뿌리를 두어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또 다른 생산과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시공간 압축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지리적·역사적 부분의 포섭과정을 보여준다. 개인적 의사결정 및 공공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 지평은 축소되는 반면, 위성통신과 운송비용의 하락으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멀리 있는 여러 지역으로 즉시 전파되는 것이다(Harvey, 구동회 외 역, 2009: 186).

이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에 따라 고유성을 획득하였던 장소는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본에 의한 시공간 경험의 질적 변화는 장소와 인간 사이의 직접적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키치⁸⁾와 '거주를

8) 키치란, 기념품이나 선물로 팔리는 평범하고 스타일이 없고 감상적이고 저속한 물건을 가리키거나, 가재도구, 음악, 건축물, 문학 작품 등에서 나타나는 평범하고 스타일 없고 감상적이고 저속

위한 기계⁹⁾ 같은 상업적 장소가 일상경관을 이룸으로써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장소가 인간의 성장과정과 맞물려 주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장소 경험의 친숙함을 획득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질적 변화는 가치의 중심(Tuan, 2007: 37)으로서 장소를 얻기 위해서 경험보다 인식(awareness)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장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물리적 거리에 따라 비례한다는 통상적 이해를 뒤집는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희상, 2007: 217)이 시공간 압축이 가져온 장소애착의 조건이 되었다. 이는 장소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즉 장소는 광범위한 환경적·사회적 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서 삶의 직접성을 깨닫는 것으로 존재한다(Relph, 김덕현 외역, 2005: 7).

셋째, 장소는 세계적 동질화의 경향에 따라 차이를 실천하는 장소 주체의 세련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주의 지리학과 현상학적 지리학에 의해 주목된 장소의 의미로 인간다움의 총체성과 주관적 판단을 중시한 지리적 결과물이다. 장소의 세련화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동질화에 따라 장소에 바탕한 정체성들(place-bound identities)의 세련화를 의미하는 것이다(Harvey, 박영민 역, 1995: 33). 즉 차이와 존재의 중심에 기반을 둔 장소에 대한 재조명을 뜻한다. 장소 주체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로서 장소를 자각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의미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사회-공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의미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장소의 정체성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 사람의 행위에 관련된다는 것으로 행위가 어떤 범위로 작동하는가에 따라 장소라는

한 형식을 가리킨다(Relph, 김덕현 외 역, 2005: 183).

9) 집이 실존과 개인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존재한다면 '거주를 위한 기계'는 집을 주택의 개념으로 보아 자전거나 냉장고를 바꾸듯 상호 교환 가능성을 갖는 집에 대한 상업적 이해가 반영됨을 의미하며 (Relph, 김덕현 외 역, 2005: 184-188).

경계 설정도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소정체성은 행위의 공간성, 경계성을 내포한다. 장소는 닫힌 공간으로 정주해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적 질서를 재구축할 수 있는 인간적 역량을 획득하는 근원지로 작동하는 것이다.



III. 장소 정체성과 수행성

한 개인의 주관적 논의로서 장소의 의미는 장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함께 자기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한다. 시간의 순차적 흐름과 공간의 구별이 뒤섞인 사회-공간적 관계로 인해 장소는 자신만의 흐름과 질서를 특정 사회의 구조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사회-공간적 구조 속에서 장소의 논리로 방향성을 만들어야 장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소의 논리가 표출되지 않을 때 장소는 단지 사회-공간 질서의 일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장소는 사회-공간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인간 행위의 중심이며 재현을 넘어선 생성의 위치에서 존재한다. 또한 장소가 생성되는 의미에서 장소의 다양성과 잠재성이 실현될 수 있다.

1. 장소의 재현과 생성

수행성(performativity)은 장소의 재현(representation)을 넘어서서 생성하기 위한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 이는 수행성 개념이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며 재현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McCormack(2009: 133)에 의하면 1980년대와 90년대를 걸쳐 지리학자들은 공간과 장소를 이해하데 있어 재현을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하였다. 재현이 장소의 정체성과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긴 때문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재현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불안정하고 부분적이며 광범위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적합성에 대해 의의가 제기되었다.

세계는 삶의 공간성과 공간의 사회성(이무용, 2005: 34)으로 규정된다. 세계는 사회-공간적 구조에서 ‘전체’라는 범위로 인식되며 장소의 재현은 사회-공간적 관계의 재현을 의미한다. 사회-공간적 구조 속의 ‘부분’으로서 장

소는 다른 장소를 함축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 갈등과 경쟁, 상호의존 등의 힘의 관계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는 장소 외적 관계에 있어 재현을 의미한다. 장소의 재현이 장소에 거주하는 삶의 의미를 형성하며 그것이 장소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장소의 내적 재현이다. 신체에 의해 공간과 시간이 구조화된 조직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인간의 운동성은 공간 감각을 확장하는 것으로 연결되며 익숙하고 의미 있는 공간적 범위가 장소가 될 때 일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은 특정 공간, 즉 장소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영역화 된 공간 인식은 시간에 대해서도 순환적 국면을 갖는다. 장소는 인간에게 적응된 시공간적 조직인 것이다. 장소가 개인적 주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시공간이 인간에게 익숙한 경험 혹은 일상생활로 체화되었음을 말하며 잠재의식적(Tuan, 구동희 외역, 1995: 193)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장소의 재현은 시공간 조직이 자아로 향하는 주관성일 때 진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장소는 장소감이며 장소의 정체성이고 시공간적 질서와 일치하므로 '재현'은 인간 삶에 대해 의미를 갖을 수 있다.

재현이 불안정적이며 부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문제를 드러낸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세계의 시공간적 조직을 재현하는 장소와 일치할 수 없는 측면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 속의 인간 삶에 대해 장소가 시공간 조직의 근원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즉 장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생성(becoming)은 주체로 하여금 시공간적 질서를 새롭게 조직하도록 하는 내적원리의 구축이다. 장소는 이에 따른 결과물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실행 자체이며 현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재현을 넘어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시공간성은 직접적 체험과는 동떨어져 있다. 장소는 활동하고 생각하는 자아에 의해 구성되는 아니라 TV와 텍스트에 의해 매개적이며 자본에 의해 상업화되었고 사회의 권력관계에 의한 정치적인 구조물인 것이다. 인간은 자아

로 향하는 주관성의 장소에 대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공간 구조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대상으로 위치가 변한 것이다. 따라서 장소는 사회-공간적 관계들이 그 의미에 대해 힘겨루기를 펼치는 곳이 되었으며 장소를 재현하는 것으로 그 정당함을 획득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장소 구성의 문제는 자본의 이윤실현이나 장소 주체들의 정체성 확보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쟁과 갈등관계에 노출된 것이다(이무용, 2005: 36).

즉 장소의 재현과 생성은 시공간 구조에 대한 주체성을 누가 발휘하는가로 축약된다. 개별적 인간이 장소 구성의 주체성을 쥐고자 한다면 생성은 지배적인 사회-공간 구조로부터 다시 시공간을 조직할 수 있는 힘과 방향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수행성과 정체성

가. 수행성의 정의와 특징

본래 수행성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초반, 영국의 철학자인 Austin이 이론화한 ‘수행적 언어(performative language)’에 기원을 둔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사실의 보고 및 상황을 묘사하는 말인 ‘진술적인 발화(Constative utterances)’와 화자가 언급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는 ‘수행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s)로 나뉜다. 특히 그가 초점을 두는 수행적 발화는 그가 든 예문 “내일 비가 올 것을 두고 6펜스를 건다(I bet you six pence it will rain tomorrow.)”처럼 행동을 수행하는 발언으로 내기를 거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기현주, 2010: 37). 여기서 발화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진위를 넘어서 그 사실을 수행하며 변화시키는데 일조한다고 구분 지을 수 있다. 즉 발화는 행위 자체이다(Austin, 김영진 역, 1992: 47).

이러한 ‘행동으로의 언어’는 Derrida에 의해 모든 언어는 다시 말하기이며,

공연(performance)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발전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공연 예술의 문화적 실천에 있어 '텍스트'의 완결성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수행성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교환 작용이 이루어지는 역동성으로 이해하게끔 하였다(이미원, 2010: 8).

이에 착안하여 Butler는 남녀의 성정체성을 '수행적'이라 지칭하였다. 성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들을 통해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젠더란 갓 태어난 아이를 '씩씩한 왕자님'과 '예쁜 공주님'으로 호명하는 탄생의 순간 형성되는 것으로 생물학적 성과 함께 문화적 의미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즉 한 인간의 생물학적 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과 동일한 의미로 존재한다. 남녀라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속성조차 특정한 배제와 동일화의 설정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오랜 관습화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성정체성이라는 당연한 속성으로 고정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믿음으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의미는 관계설정에서 따라 위치가 변동되는 불안한 성질의 것이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확정된 모든 대상의 정체성이란 본래 불안하게 잉태된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 Butler의 요지이다. 즉 주체의 정체성이 갖는 안정성이란 다른 정체성과의 복잡한 관계 설정에 따라 의미를 재위치 시킴으로써 변할 수 있는 것이다(McCormack, 2009: 133).

주체의 정체성이 관계 설정에 따라 재위치 된다는 수행성의 의미는 성정체성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의 권위를 전복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수행적으로 해석되는 젠더 정체성은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모두 패러디적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조현준(2009)에 의하면 여성이 자신을 여성적으로 연출하고 싶어 하거나 여장남성이 여성을 모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연출되는 여성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을 과장시킨 이상화된 여성을 과도하게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본으로서의 여성과 모방본으로서 여장남성 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모방 사실을 인정하고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여장남성이 자연스러운 여성성을 가장하는 여성보다 여성성의 생산과정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은 원본이 아니라 여성이라 여기는 인공적인 이상이기 때문에 패러디적 정체성은 원본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원본이라 가정되는 복사본에 대한 모방으로 얻어지는 정체성이 된다. 이로써 원본의 권위는 부정되고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선험적 본질이 아니라 제도문화에 의한 이차적 구성물인 것이다. 수행적 관점은 모방이 원본이 아니라 원본이라 가정되는 복사본에 대한 모방으로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를 지운다.

수행성은 정체성들을 특정 가치와 연결시키는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어 사회·문화의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담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Sharp(이영민 외역, 2011: 43)에 의하면 담론은 사람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로 어떤 역사적 시점과 장소에서 지식과 이해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는 불변적이기보다는 시공간 특수적이다. 담론은 단순히 지식을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지식으로 포함되는지를 정의한다. 종교적 담론, 과학적 담론들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담론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의 매우 다른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즉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주체들은 그 사회에 적절한 양식, 즉 상징적인 이해 가능성의 경계들(Salih, 김정경 역, : 135)을 보여주는 기호인 것이다. Butler도 성정체성을 사회적 인식의 가능성에 따라 경계 지어진 기호들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계 밖의 ‘소외’된 주체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수행성은 소외된 주체들도 반복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인식가능성의 주체들로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가능성의 언어이자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적 관점에 있어 정체성의 자아의 해체를 인식하고 수행적 구성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관습적으로 굳어진 기타의 정체성들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당연히 하였던 정체성

들을 해체하였을 때 타자와 구별되는 자아의 개별성은 어떻게 획득되는 지에 대해 차이를 수행해야 한다. Butler에 의하면 여성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Salih, 김정경 역, 2007: 34)으로 젠더 정체성은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수행성(performativity)이다. 수행(performance)¹⁰⁾이 행하는(doing) 주체 혹은 행위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반면, 수행성은 주체라는 선험적 개념 자체에 저항(조현준, 2009: 193)하여 행위의 결과물로 존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성이 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존재이고 이를 통해 주체성을 획득한다면 수행(performance)이 아니라 수행적(performative)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수행성은 의미화하는 행위를 통해 존재하도록 하는 행위 주체성을 만들어낸다. 젠더 표현 뒤에 젠더 정체성은 없으며, 정체성은 그것의 결과라고 말해지는 그 표현에 의해 수행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정정호 외, 2008: 302). 이렇듯 수행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가능하며 행위를 통해 수행하는 만큼만 주체를 말하게 된다. 따라서 수행적 주체는 안정되거나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한다. 수행적 정체성은 시공간적 특수성 속에서 사회·문화적 의미화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언제까지나 지연되는 과정-중의-주체(subject-in progress)를 구성한다.

나. 수행-중의-주체

수행-중의-주체는 주체를 모든 사물들의 주창자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며(Butler, 김윤상 역, 2003: 9) 동시에 역동적 구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수행성에 따르면 주체는 의미화의 대상이며 의미화 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은 개별 주체를 구성되는 존재로 규정하며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개별 주체

10) 주체 혹은 행위자는 행위나 속성이 가늠되는 선험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므로 주체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집단의 사회성 또한 구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함축하게 된다.

주체가 의미화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사회를 이루는 제도나 권위를 통해 의미화 된 물질이며 재현된 결과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양식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적 실체 또는 본질적인 고유성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체는 해부학적인 자연성과 의미화의 작용이 동일화 되는 과정에서 본질적 성정체성이라는 오류에 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규범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화된 육체의 물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Butler, 김윤상 역, 2003: 9). 주체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가장 사회적이며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발화하며 주체를 의미화하고 규제할 수 있다. 언어가 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언어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주체는 의미화의 양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대상에 대해 발화함으로써 대상을 행위 한다. 그리고 주체는 발화의 결과물으로써 규칙을 내면화한 상태이며 자기 동일화를 이루기 위해 실천적 활동을 반복할 것이다. 주체는 사회적 행위를 반복 실천함으로써 드러나는 대상이다.

또한 주체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존재이다. Hegel에 의하면 주체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이전에 범한 실수에서 도망치고 자신을 완전히 분해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함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확립할 수 있다(Salih, 김정경 역, 2007: 52 재인용). 이는 주체 인식에 있어 절대적이고 이성적인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절대지(知)를 향해 나아가는 자기활동(自己活動)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자신을 현실 속에서 차별화시킴으로써 세계의 보편적 원리를 자기 안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변증법적 주체를 이루었다. 반면 수행적 주체는 행위를 통해서 구성된다. 즉 행위 하는 시공간적 특수성으로 현재에 한정된 존재인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수행적 주체성은 완결되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지연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 헤겔의 변증법적 주체가 자신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수행적 주체는 자신의 차이를 행위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현재라는 당면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의미들은 다른 시공간적 맥락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시 분석되고 수정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미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시공간 속에서 ‘생성’되며 수행적 주체성은 확대된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Salih, 김정경 역, 2007: 50).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갖는 의미는 항상 그 자체를 넘어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수행되는 시점으로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의미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도 압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복 실천되는 행위는 어느 시점에서 다시 해석되거나 반성하는 과정으로 재의미화 될지 가능성과 예측불가능으로 열려있게 된다.

수행성을 자기-이해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간의 범주를 달리하면 사회적 인식가능성에서 벗어난 대상들이 전복될 필요성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수행성을 공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일은 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사회-공간 관계에서 위치 설정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범주적 대상들이 인식가능성으로 전복되어야 할 필요성은 억압에 있다. 그들은 사회-공간적 규범에 의해 배제되어 인식될 기회를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배적 주체성들 또한 사회적 구조라는 틀 속에 종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구조로 인해 자리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utler(조현준 역, 2008: 69)에 의하면 ‘나’는 언어 속에서 인칭의 가능성을 지배하는 문법의 결과이다. 따라서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문법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언어구조, 사회구조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의 한계성은 현재 ‘인식 가능한 나’에 대한 한계를 의미한다. 인식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사회적 문법이 변할 경우 위치가 전복될 수 있는 일의적이고 잠정적인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문법적 주체로서 '나'에 대한 해체는 나를 지배하는 사회·문화적 문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의 잠정적 정체성이 출현할 가능성을 가져온다. 즉 주체의 해체는 주체가 다원성이 될 수 있는 확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주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의 정체성들을 불러들이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다원성은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을 예고할 수 있다.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확연히 나누어져 있고 태생적 구분이라 여겨지는 나와 너,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백인과 흑인 사이에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는 대립되는 주체들 사이를 점진적으로 연결해주며 사이를 좁혀줄 존재들의 생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많은 타자를 의미한다. 외적으로는 나와 그들을 관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나'라는 존재의 다양한 타자성이 존재론적 충위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실천하는 저항성

수행성은 결국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생성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Butler의 수행성은 관계의 생성에서 전복성을 띠며 비인식적인 주체가 사회적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구조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천이라는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으로 돌아왔을 때 개인의 사회적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음을 파악한다. 아울러 개인의 내적인 정체성은 끊임없는 자기 저항성과 생성을 위한 조용한 기획으로 전개되며 소극적인 경향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획성은 소수적 범주의 주체들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체성들의 구성되는 원리로 적용될 때 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관계와 구조에 대한 전복보다는 개인의 일상적 실천에서 내적 전복으로서 저항성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개인의 내적 관계에서 전복은 장소간의 경쟁이나 갈등의 정치성보다는 각

성을 요구한다. 각성은 자신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조건, 개체로서 구분되는 특성에 대한 고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끊임 없는 자각을 의미한다. 기존의 영역화 된 조건들에 대한 반성이 장소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복은 각성을 통한 내적 구성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이며 영토적 조건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획득하기 위해 전복이 필요한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사회-공간 구조에 의한 장소의 재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소 획득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복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전복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방식이나 내용이 전복적인 것인가는 의미가 없으며 전복적인가를 가르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맥락적이다(Butler, 2008: 65). 전복은 일상적 차원에서 재현에 대한 차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의의를 갖고 있으며 장소 정체성을 이루는 영역화의 과정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체성(subjectivity)은 어떤 주체가 물질세계에서 행하는 활동, 물질세계에 대한 주체의 느낌, 물질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주체를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박규택 외, 2010: 360). 주체란 행위와 의도의 주인을 의미하지만 환경의 영향 속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주체로서의 '주권(sovverign power)'을 발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McCormack, 2009: 133). 행위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양식에 의해 고정된 정체성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전복적 잠재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전복적이기 보다는 담론적 실행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McCormack, 2009: 134). 자아라는 정체성은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응답함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지만 선택은 처음부터 주어진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의 생성은 현재의 주체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현재의 정체성에 이의가 제기되어 대안적 정체성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존 정체성이 발휘한 효과의 이면에 있던 암묵적 효과가 인식된 것이다. Butler는 이를 전복성이라 하였으며 주체는 권력 자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내적 자기 저항성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조현준, 2001: 201). 주체가 자기 저항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저항성과 저항성이 재권력화 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Nelson은 수행성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변형된 행위주체성(transformativity agency)으로 여지를 갖는다고 하였다(McCormack, 2009: 134). 수행성이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저항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정을 수용할 경우 행위주체성은 보편적이며, 이성적이고 남성적인 주체들과 동일한 주체가 되어야 할 필연성을 갖는다. 행위주체성은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담론적 주체이므로 자연스럽게 기존의 인식 가능한 주체들-남성, 백인, 이성애자 등의 권력 주체들과 맞물리게 된다. 이러한 주체들은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행위주체성을 설명하므로 이들에 의한 수행성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상의 모순을 지닌다. 따라서 Butler가 수행성에서의 행위주체성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하더라도(조현준 역, 2008: 360) 수행성은 행위주체성의 주체에 대한 수용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수행성이 주체의 역동적 생성과 세계의 다원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Butler는 주체의 해체와 부정에 대한 급진적인 방식으로 ‘수행성’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관계와 구조를 전복하는 결과를 예상하였다. 하지만 수행적 정체성은 실천이라는 일상적 범주로 소급됨에 따라 한 개인의 문화적 역사를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만드는 ‘조용한 기획’(Butler, 조현준 역, 2008: 89)이 되어 버린다. 즉 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개인과 그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바탕으로 다시 ‘반복되며 인용되는 실천(임

옥희, 1999: 259)'인 셈이다. 따라서 수행성은 현재의 사회구조를 통해 구성된 주체나 고정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 한 인간의 삶이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는 시간의 잣대를 통해 해석하려는 시도가 보편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체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시공간의 특수성이라는 스케일을 원천봉쇄해버렸다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시시각각 변화의 과정에 있음에도 육체를 통해 의미를 양식화 한 정체성은 영원불멸의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다. 수행성은 주체나 정체성에 대해 시공간적 특수성이라는 시각과 함께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밝히는 시도이다. 그리고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주체와 정체성이 일상에서 구성과 재구성을 반복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성이라는 실천의 과제는 현재라는 사회적 구조 혹은 시공간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사회-공간적 구조로부터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음은 한계인 동시에 해법이 된다.

라. 수행적 장소 정체성

수행성은 주체의 이분법적 구성에 대한 비판과 일상에서 행위의 반복 실천을 강조한 개념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그들 앞에 놓인 사회적 구조의 특수성을 반복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며 다양한 타자들과의 접촉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타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다자성은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힘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다수의 관계를 통해 연결과 구분의 전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관계 사이의 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이 수행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체성의 독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있다. 관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다자와의 관계를 형성

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되지만 동시에 자신을 생산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또한 관계가 가변적임에 따라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 또한 역동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수행적 정체성의 특징은 ‘단단한 지반이 없는 결속의 상태’이거나 잠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전략적 잠정성(strategic provisionality)’ 혹은 ‘작전상 구성주의(operational constitutivism)’가 된다(조현순, 2001: 202).

상황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은 관계의 사회구조 속에서 한 인간의 동일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기 분열적인 구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거대한 구조화가 지역화라는 차이의 영역을 발생시키는 이유도 동일성의 분열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구조가 관계의 복잡함에서 일반화를 이룬 것이라면 일반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역설적으로 관계의 재편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적 차이는 단순히 자본 유치를 위한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것을 넘어 관계의 네트워크로서 특수성을 나타낸다 하겠다.

장소는 개인이 주체가 되기 위해 의미화 하는 사회-공간적 관계의 시작이자 사회적 양식에 따라 행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을 이루어내는 의미화의 끝인 지점이다. 행위의 처음과 끝은 결국 자기 동일성을 이루어내는 장소로 통하며 장소는 행위 하는 ‘나’로 규정되는 행위의 주체성이다. ‘타자’와 ‘차이’를 인정하며 세계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행위의 실천이 수행적 정체성이라면 장소 정체성은 수행적으로 구성된다 하겠다.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구조는 권력화 된 공간인 동시에 장소를 둘러싼 환경이다. 장소를 구성하는 일이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차이의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 일이라면 장소는 영토적 범위를 벗어나 ‘나’를 대신하는 상징으로서 언어이며 행위가 된다. 또한 사회-공간적 질서에 합류한 보편적인 개인이 되어서는 차이로 구성된 장소의 주체라 볼 수 없다. 장소는 사회적 구조화로 인해 배제된 차이의 영역들을 일상적 삶을 통해 실천하고 드러냄으로써 장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소라는 고유성과 독자성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유연한 경계를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에 따른다. 경계의 움직임에 따라 의미와 무의미의 위치가 정해지고 자아와 타자, 장소와 장소, 주체와 비주체를 가르는 움직임이 형성되는 것이기에 경계의 움직임은 끊임없는 장소의 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위는 가장 직접적이며 능동적인 방식으로 장소의 경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소 정체성의 수행적 구성을 ‘수행적 장소 정체성’이라 의미화 하고자 한다. 이는 장소가 주체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가치임은 여전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문화적 실천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해 역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이미원, 2010: 7). 따라서 장소를 재정립하는 일은 행위를 실천하며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대를 만드는 일이며 ‘거주’를 넘어 상징적, 언어적 의도를 행위로 표현되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즉 실천의 장소성은 기존 텍스트의 의미를 변환 또는 전복 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양식을 반복 실천하는 수행성의 장소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주체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수행적 장소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수행적 장소 정체성은 새로운 사회-공간적 구조를 만드는 참여이며, 행위자체로 이해된다.

3.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실천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실천은 사회-공간적 구조에서 열린 성향을 만들어 낸다. 반복 실천하는 장소 정체성이 공간성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사건들과 그것들의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공간적 구조가 수행적이기 위해서는 장소와 행위가 일치된 범위, 즉 인간이 수행적 주체라는 가정 하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천의 사회-공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복이 개인적 의미에서 내적 저항성으로 의미를 갖는다면 사회적으로는 소수자적

특성을 억압하는 지배 규범에 대한 저항으로 정치성을 갖는다. 장소 외부와의 관계에서 장소 정체성을 수행하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문제이며 인정받거나 배제되는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다.

가. 행위 하는 인간과 행위의 직접성

Arendt(이진우 외역, 1996)는 인간의 조건을 활동적 삶(Vita activa)을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행위의 무대로서 장소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활동적 삶은 인간 실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 있어야 할 것, 순환의 자연성으로부터 벗어난 인간만의 인위적인 세계를 만들 것, 말과 행위를 통해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타자들이 있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그 중 마지막 조건은 바로 말과 행위를 통한 다원성을 의미하며 동등성과 차이성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는다. 행위는 한 인간이 탄생과 더불어 개체로서 공간적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간의 기초적 활동이다. 반면 말은 타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행위를 발화함으로써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말과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게 된다. 즉 다원성은 개별성의 인정과 함께 획득되는 인간의 조건이 된다.

행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성이며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환원불가능성을 갖는다. 행위의 속성은 새롭고 자발적인 과정으로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을 영위하는 과정적 성격에 부합된다. 역사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것도 결과를 일으킨 원인으로써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반추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과정에 의미와 지속성을 부

여할 수 있는 것은 행위 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위는 장소를 무대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과정이다. 즉 장소는 행위의 실천을 통해 내적 개별성을 획득하고 외적 다원성을 인정받는 영역화 과정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의미를 생산해내는 공간적 범위로서 장소의 본질적 의미를 말한다. 행위는 인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며 삶이 진행됨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장소는 사회-공간적 관계에 대한 영역화의 범위가 된다. 영역화라는 역동적이며 가변적인 상황이 신체라는 가장 직접적이며 지리적인 범위를 통해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행위가 시공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화하고 통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간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행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가 수행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와 일상의 반복된 실천을 하는 ‘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때 행위는 장소의 일상적이고 세세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래의 장소를 구성함에 있어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수행성은 사회-공간적 구조와 장소의 관계를 체화된 방식으로 지각하려는 시도이다(박규택 외, 2010: 363). 따라서 행위는 장소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 것이어야 하지만 바로 옆에서 일어나 지각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은 아니다. 장소가 스케일과 네트워크를 통해 인식될 수 있듯이 ‘직접성’은 체험의 범위가 아니라 인식의 범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장소를 중심으로 영향을 받거나 끼치는 범위에서 행위의 직접성이 설명되는 것이다. 수행성이 관계를 체화하는 방식에서 행위를 필요로 한다면 체험된 사건이 아니라 의미를 체현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는 사회-공간적 관계과 장소의 영역화에 관여하며 장소를 생성하는 일상적 실천이

된다.

나. 다원성과 소수자성

수행적 주체와 장소 정체성을 실천하는 문제는 다양한 장소가 갖는 생성적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장소의 다원성에 관한 문제이면서 사회-공간적 구조를 관계 중심으로 인식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Butler의 논의와 관련하여 '소외'된 주체들이 사회적 영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양한 장소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문화적 양식이 대안적 영역으로 새롭게 인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래에 대안적 영역으로 가능할 사회적으로 소외된 주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가능한 영역으로 만들며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공간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행위의 반복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며 주-객 관계에 따른 종속에서 독립되는 것이다. 소외된 주체들이 사회-공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의미에서 '소수자(minority) 운동'은 가치가 있다. 비록 이러한 사회적 운동이 아직까지 성정체성이나 이주자의 인종정체성 등 범위상 제한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소수자가 되는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성을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개별성으로 정당화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후에 기술될 소수자 운동은 정체성이라는 개별적이고 일상적 의미를 행위하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박경환(2008)에 의하면 기존의 소수자는 이분법적 사회구조에 따라 규범화된 다수자 대 소수자의 구도 속의 집단화된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에 머물러 있다. 소수자라는 명칭 속에는 그 표면적 의미처럼 사회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다수자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폭력으로 인하여 인권과 기본

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타자로 정의된다(최협, 2004; 유명기, 2004; 박경환, 2008: 298 재인용). 다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는 자신의 안전에 위협하고 위협적인 존재들로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수자 운동은 배제와 차별에 저항함으로써 보통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의미한다(장미경, 2005: 320).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소수자의 정체성은 다수자와 동등해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의 삶의 양식은 사회적 구조의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즉 그들의 정체성은 이분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희생양으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행위는 구조의 재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수자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와 다수자 대 소수자의 관계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들의 불행한 처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윤수종의 소수자에 대한 견해는 지배적인 사회구조에서 탈중심적인 입장을 띄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수자 운동은 차이의 정치 혹은 정체성의 정치(2002, 2005, 2006; 박경환, 2008: 299 재인용), 욕망의 정치(윤수종, 2009: 156)로 파악된다. 초반의 연구와는 다르게 소수자의 정체성을 차이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다양하고 사회적인 광범위한 욕망(윤수종, 2009: 157)'을 규정함에 따라 확대된 것이다. 욕망의 정치는 '정체성을 넘어 다른 것 되기'로 나아가자는 논지로 소수자적 욕망이 다수자적 관점에서 제어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소수자는 사회 일반적 관점에 따라 정상적 규범 안에 있는 다수자와 배제되는 소수자라는 인간집단의 범위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다수자와 소수자는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성질로서 다수자적 욕망이 사회 규범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면 소수자적 욕망은 그것으로부터 일탈하고 싶은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내부에 다수자성과 소수자성을 갖는 존재로 다수자성이 사회-공간적 관점을 의미한다면 소수자성은 개별적·주관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자와 소수자는 지배와 종속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소수자는 '표준화 된 인간상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윤수중, 2002: 11; 박경환, 2009: 299 재인용). 즉 다르게 사는 삶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며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삶의 양식이 차이로서 존재한다는 긍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 운동은 차이를 실천하는 집단적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분자적(molecular) 운동'이 된다. 분자는 물질의 속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물질의 단위로서 사회-공간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은 분자들이 새로운 배열과 조합을 이룸에 따라 새로운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에서 분자는 물질이라는 구조 속에서만 가치를 갖는다는 이분법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공간 구조를 만들어내는 분자로서 다원성의 의의가 있다.

사회-공간 구조의 구성방식은 구조와 장치를 파괴하는 것에서 구조와 장치들이 의존하고 있는 기계의 작동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윤수중, 2009: 123; 신승철, 2009: 367 재인용).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소수자 운동은 소수자적 속성이 어떻게 수행되는가와 관련한 문제이다. 소수자적 속성이 일상적 삶의 양식으로 인정된다면 동등한 타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표준적'이며 '정상적'인 규범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된다. 또한 소수자적 특성은 특정 집단에 국한된 정체성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비정상적이며 뒤떨어지고 배제된 의미의 '잉여'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 된다. 잉여는 뒤쳐지고 결여된 '무엇의 유무'가 아니라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다른 삶의 양식일 뿐이다. 따라서 소수자적 속성의 일상적 실천을 공론화 하는 일은 개인과 집단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확장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위의 주체성은 고립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영역화의 과정이 된다. 타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

을 통해 장소에 바탕한 공통적 삶의 양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소수자적 정체성을 공론화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행위를 통한 타자성의 적극적인 추구와 공유에 있다. 따라서 행위 주체성은 장소를 실천하며 공간을 수행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가능성(iterability)은 장소를 비재현(nonrepresentation)적으로 생산함으로서 다른 무엇을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소수자적 정체성이 장소의 다원성을 획득하는 데 가치가 있다면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실천은 규범적 동질성으로부터 개별적 특수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적극적인 참여(McCormack, 2009: 136)'로 다원성과 개별성의 수행적 주체들과 장소 정체성을 펼쳐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범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다수의 소수자 의식(박경환, 2008: 308)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장소에 기반한 수행적 주체들의 빈번한 출현으로 장소가 생성의 공간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Harvey(박영민 역, 2005: 33)의 '장소에 바탕한 정체성들(place-bound identities)의 세련화'이며 Relph(김덕현 외역, 2005: 7)가 의미한 무장소성의 지리적 경험에 대해 지녀야 할 '지리적 능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지리적 능력이란,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개인이며, 동시에 광범위한 환경적·사회적 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삶의 직접성을 깨닫는 능력을 말한다.

IV.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실제

1. 사례 지역의 특성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 대상을 제주도라는 지역으로 설정하려 한다. 행위의 실천은 제주가 처했던 사회-공간적 구조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해야 하는 반복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행성이 사회-공간적 변화를 기획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제주라는 장소 애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라는 정체성을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제주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장소 인식은 어떤 형태를 갖는지 살펴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

첫째로, 제주는 장소와 지역의 인식 범위가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체성은 인간이 사회-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 정체성은 개인을 타인과 구분하고 특징적인 삶의 양식 및 영역화 과정으로 가치가 있지만 사회-공간 구조의 재설정을 통해 생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소의 생성은 사회-공간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집단적인 공동체성을 인식할 때 공론화되며 기획성을 갖게 된다.

장소 정체성을 논의하는 일은 현재의 장소가 갖는 시공간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화된 공간적 범위인 지역은 장소와 공통적인 범위를 공유함으로써 사회-공간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지역은 장소만큼이나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일상적 생활의 범위로 의미를 갖는다. 인간주의지리학에서는 지역도 장소이다. 최재현(2005)은 지역과 장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장소와 지역을 동일어로 사용해왔다. 전

통적 지역개념은 지방과 국가적 수준 사이에 경계가 설정된 지역단위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는 좀 더 유연하게 장소의 개념을 더 선호한다. 장소는 본래 의미인 구체성이나 독특성 대신에 '광범위성', '개방공간'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지역정체성은 장소성을 갖는 공간이다.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이며 경험적인 공간이므로, 지역 형성의 중심은 바로 경험을 통한 인간의 역할에 있다. 개인의 자각과 자의식, 타인과의 연대감 등에 의해 인간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 사회적 행동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이다.

지역이 장소라는 의미로 호환될 수 있는 곳에서 지역은 거주 기반이며 장소 인식을 통한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따라서 제주도라는 지역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범위로서 인간의 생활권으로 의미를 갖는다. 즉 지역은 장소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조작적 범위가 된다.

둘째, 제주라는 자연적 여건은 장소 정체성 형성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다라는 경계성은 시각적으로 공간이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며 이로 인해 제주의 많은 역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몽항쟁의 격전지, 조선시대의 유배지, 외부인의 표류지 및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족 내분에 의한 희생양 등 주변부로서의 역할을 한 일례가 많았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관계에서 제주는 항상 중심에서 배제되고 결여된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구성해온 것이다. 사회-공간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배권력의 양식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아울러 조선시대의 출륙금지령 등의 사회적 제한이 아니더라도 바다라는 지리적 조건은 제주사람의 외부세계로 향한 욕구를 통제하는 충실한 기능을 수행했다. 바다는 외부 세계와 제주 사이에 놓인 경계공간으로 작용하였으며

절도(絶島)(고은, 1976:13)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섬은 지리적으로 결여의 공간이다. '이어도'라는 상상의 공간이 필요했던 이유도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가정과 마을의 구성원이 죽음으로 인한 관계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다라는 확실한 경계는 제주사람의 장소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이 밀착되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토박이로 산다는 것은 제주에 대한 강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며 동시에 외부에 대한 깊은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제주라는 땅은 지리적 주변부이며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공간을 이루어왔다. 출륙금지령이 외부에 의해 지정되어 격리된 공간을 형성시켰다면 내부적으로는 소수자로서 자기의식적인 (집단적) 존재를 형성시키는 공간적 범위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박경환, 2008:303). 이는 제주가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사회·문화적 양식을 지킬 수 있었던 내외적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제주라는 지리적 공간은 단순히 위치나 영역에 의해 결정되고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간적 구조나 관계를 염두하여 이해해야 한다. 공간의 구조가 인간의 삶을 반드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관계 양식은 인간의 삶과 의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간성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소수자적 공간은 소수자의 일상적 생활 양식이 집단 의식화된 공간으로 수행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소 정체성과 관련하여 소수자성이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간이 사회-공간 구조에 대해 기획성을 발휘해야 한다.

2. 올레와 수행적 정체성

가. 올레길이라는 우연한 사건

본 연구는 2007년 9월 제 1코스를 개장한 이래 제주라는 자연적·사회

적·문화적 가치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올레길의 장소성을 살펴보고 장소 구성의 진정성이란 어떤 방식과 과정에 의해 획득되는지를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Pred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는 언제나 사회변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공간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역사적이고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손명철 편역, 1994: 26). 제주에서 올레길이라는 공간적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생시킴에 따라 올레를 걷는 것은 단순히 길을 걷는 개인적 의미를 넘어섰다. 올레를 걷는 일은 올레와 관련된 의미를 '걷기'를 통해 다시 발생시키는 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올레와 관련된 제주성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 대립적 입장들을 양산하고 많은 담론을 만든 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올레길은 장소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행위를 실천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자기 의식적 존재로서 장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는 무수한 역사적 사건마다 '행(doing)'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였으며 주변의 사회와 관계를 이루었다. 그러나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체성을 획득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것은 제주의 역사가 주체적으로 사회-공간적 질서를 조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 수행적 주체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 타는 섬'이라는 명칭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은 척박한 제주의 자연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공간 구조를 지배하는 세력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달리 해야 했던 자조적인 목소리로 이해된다.

하지만 수행성에 따르면 주체는 항상 형성되고 있는 과정 중의 구조를 떼낸다. 그 과정에서 여러 방식으로 주체성을 취하거나 다시 반복할 수 있다(Sara Salih, 김정경 역, 2007: 22). 사회적 관계에 있어 주변부적이고 소수자적인 정체성은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낼 것을 더욱 요구받는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위치가 변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다. 또한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매우 제한적이다.

수행적 주체가 반복 실천을 통해 구성된다는 의미는 일상적 삶의 양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의 통해 구체적 행위를 통한 적극적 참여를 하며 주체성을 발현해야 한다. 장소의 생성은 새로운 장소성의 출현으로 사회-공간 구조에 대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올레길은 제주라는 공간을 재조명한 사건이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유채밭과 신혼여행이나 수학여행지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새로운 장소성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걷기라는 행위는 관광에서 여행으로 체험을 기획하는 주체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의미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주라는 공간이 올레길 걷기를 통해 개인의 삶에 생성적 과정을 일으켜 인간과 장소가 동일화되는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라는 공간이 다양한 장소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행위는 장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자 구성요소이며 다원성의 개별 입지를 갖는 수행적 주체들을 함축한다.

하지만 장소 생성의 기본 조건이 삶의 일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볼 때 올레길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 초기의 올레길의 구성에 있어 사회적 인사들과 언론이 관여로 공론화 된 것은 장소의 의미 부여가 외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올레길이 제주 사람에 의한 제주성을 만들어내는 데 배경이자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걷기를 통해 자연과 평화라는 삶의 양식을 체험한 올레 참여자들이 제주도 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저항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레길을 통해 대중화된 느낌과 치유, 평화 등의 문화코드는 제주의 장소성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개발과 폭력이라는 권력에 저항할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즉 올레길을 걷는 행위가 다른 행위를 파생시키며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자적 장소의 의미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체성으로 의미를 갖는다. 외부에 의해 제공되는 '잘 사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경제적 풍요로움을 택하기 보다는 주민으

로서 주도권을 갖는 일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을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장소를 기획할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고 공동체적 삶이 파괴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행위는 반복 실천의 과정을 통해 의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관련된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장소의 의미를 실천하는 문제는 개인적·일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장소성을 획득하고 지배양식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은 세력화하여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장소는 공통된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공동체성과 일치하게 되었다.

나. 올레의 전통적 의미

현재 올레길로 알려진 '올레'는 본래 제주의 전통가옥 구조의 하나로 존재하며 '올레'라 불리웠다. 올레길을 통해 갖게 된 현재의 다양한 장소 의미와 공동체성의 자각은 전통적 올레를 통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길'이라는 형태적 특징과 공동체적 유대 관계는 올레를 통해 볼 수 있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즉 올레길이라는 사건을 통해 얻게 되는 개별적 삶의 의미 추구하고 주민이라는 주체성의 자각은 올레의 전통적 의미를 살핌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재를 기점으로 '올레'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1) 마을과 개인의 연결 공간

일반적으로 길을 낸다는 것은 개인의 집터를 잡고 서로의 사적공간을 마주보지 않기 위해 샛길을 내고 점점 확장하여 안길, 큰길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집단의 규모가 불어남에 따라 지형, 풍향, 식수의 확보 등의 외적 조건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올레를 처음부

터 거주공간에 한정하여 생겨난 길이 아니다. 마을이라는 전체 조직에서 개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역순을 거치면서 자기 동네와 이웃들과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올레이다. 올레는 마을공간과 사적공간에 대한 연결공간으로서 사람의 의도와 의미가 누적되어 반영된 물적 환경인 것이다.

제주의 마을은 한반도와는 다른 자연적 조건으로 일반적인 마을구조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다. 처음 마을의 터를 잡을 때는 주위가 아늑하고 굴렁진 곳¹¹⁾을 이용하며 물이 가까운 냇가를 따라서 마을이 놓이고 경작지는 마을 주위를 빙 돌아 배치된다. 그리고 배후지에나 있어야 할 당은 마을 곳곳의 우묵하거나 나무로 둘러싸인 곳처럼 음지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배치는 한반도처럼 배산임수의 원리¹²⁾가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며¹³⁾ 유교적 위계사상 및 계급의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마을길의 짜임새 또한 전형적인 나뭇가지 형태보다는 큰 길에서 고리형 혹은 활꼴로 마을 중심을 통과하는 돌레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부지가 대체로 평지에 가깝고 바람이 많으며 물이 나오는 곳이 드문(제주도, 1996: 438) 지리적 특징에 따른 것으로 마을 안으로는 T자형 혹은 방사형의 마을 안길이 마련되어 자연스럽게 그물코 형이 되기 쉽다. 김홍식(한창기 편, 1983)은 제주의 마을길이 형태를 다양하여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길은 크게 큰길과 작은길로 구분되어 작은 길은 올레 방식을 띠고 큰길은 환상도로방식과 방사전 도로 방식의 두 가지가 합쳐진

11) 굴렁진 숲길 움푹, 패인 지형을 제주어로 굴렁지라고 한다.

12) 전통적 공간개념에 따르면 우물정자(井)의 맨 북판은 마을의 공간이고, 이를 다시 우물정자로 나누어 북판에 가옥이 배치되고 그 주변엔 텃밭, 그 공간을 둘러싸는 ㄷ자의 북쪽 지역은 마을의 배후지로서의 연료림이나 선조들의 무덤, 포제단 등의 공간이 계획되었고, 앞쪽 지역은 경작지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한라산을 제외한 그다지 높지 않은 오름이 집중분포 되어 산동(山東)과 비교적 완만한 지형적 조건을 가진 산서(山西)가 서로 상이한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천다운 하천이 없고 지질조건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한반도와 같이 산수가 명확하지 않아 형국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위적으로 방사탑이나 마을 숲 등을 조성하여 허한 부분을 만회하려 하였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마을구성의 1차적 요건은 식수확보의 용이성과 생산성 확보였다고 할 수 있다(김태일, 200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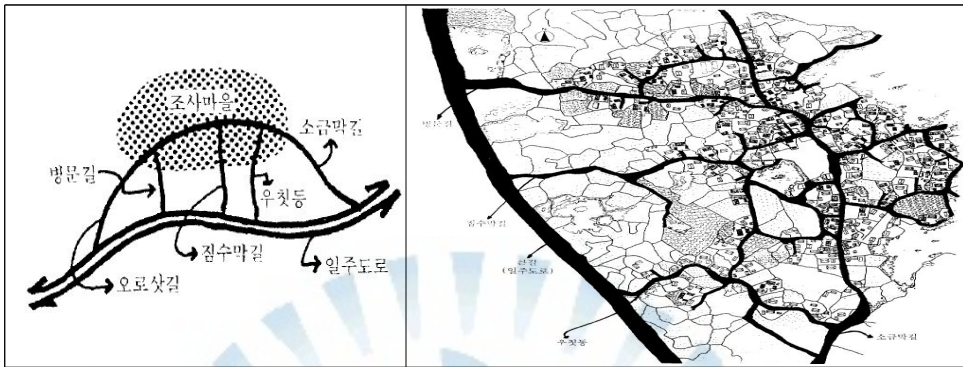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의 동족마을은 제주도 자연마을 중 비교적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홍중수 외, 1991). <그림1>과 <그림2>에 나타나는 일주도로라는 큰 길은 마을로 바로 들어오지 못 하고 들어오는 어귀를 병문질, 오르삿질, 짐수막질, 우칫등, 소금막질의 5개로 나누었다. 이는 외부 교통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교통은 큰 길에서 나누어져 들어오게 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마을의 영역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적으로는 보행도로와 차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분산하고 마을의 안과 밖의 경계로서 역할을 하며 공간이 전환됨을 알려준다.

마을의 배치에 있어 큰길로부터 떨어져 만들어진 원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마을배치와 같다. 마을 안길의 이런 체계는 보행자로 하여금 아늑한 느낌과 계속되는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길가에 대문을 내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길과 집 사이의 나무가 들어서 시선을 막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지만 바깥길을 걷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뿌리깊은 나무, 1983:191). 안길은 다시 셋길로 이어지는데 안길이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길이라면 셋길은 마을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 동네가 사용하는 길이다. 이 길을 바탕으로 윗동네, 큰동네, 논동네, 엉물동네, 공떨동네, 앞동네의 6개 동네로 구분되어¹⁴⁾ 상부상조의 계가 조직되고 공동 우물, 공동 작업공간이 구성되었다. 안길이 마을의 영역성을 구성한다면 셋길은 동네의 영역성을 구성

14) 제주도의 자연마을은 일반적으로 큰 편이다. 한 예로 1968년도의 제주도 통계에 의하면, 자연마을수는 545개, 총 가구수는 75, 886이다. 따라서 하나의 마을에 평균 139가구가 되는 셈이다(서경림 외, 1990: 325). 마을을 외형상의 대소에 따라 150호 이상을 대촌, 60호 이상 150호 미만은 중촌, 60호 미만을 소촌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주도 마을은 대부분 중촌에 해당하고 대촌도 적지 않다. 1984년 10월 현재 가구수로 보면, 100-299가구로 이루어진 행정리가 전체의 48.8%가 되고,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25.7%이며, 99가구 이하의 마을은 16% 정도에 불과하다.(중략) 1986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에는 행정구역상 30개 동, 161개 리, 557개의 자연마을이 있다.(제주도, 1996: 492). 이처럼 마을이 크므로 제주의 마을은 '윗동네', '알동네', '동동네', '셋동네' 식의 몇 개의 작은 자연집단으로 나누어진다.(서경림 외, 1990: 325)

하는 경계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부터는 대체로 막힌 골목 수법으로 긴 올레를 두는 기법을 선택하여 중국에는 개인의 주거공간에 다다른 과정을 띤다.



<그림1> 고리형 마을길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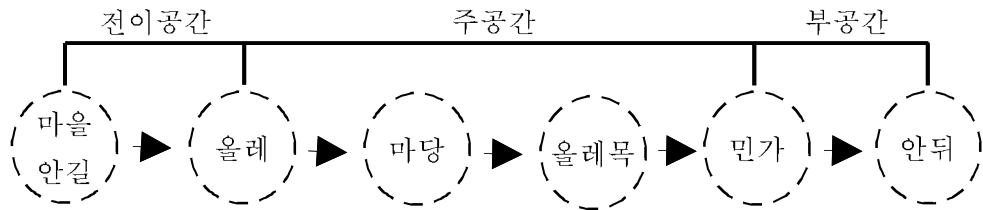
<그림 2> 길의 체계에 따른 민가의 분포¹⁶⁾

2) 흐름의 공간

이런 올레의 공간성을 심우경 외(1999)는 연결성과 이동 사이의 완급, 폐쇄와 트임으로 규정지었다.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넓은 공간에서 적은 공간으로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으로 점진적 변화를 이루는 연속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올레는 개인의 사적공간에 대한 접근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각각의 공간기능을 시점의 이동에 따라 밀도 있게 체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림3>과 같이 한정된 규모의 공간 안에 분명한 기능과 경관을 갖는 다양한 장소의 체험으로 큰길-마을안길-올레-올레목-안마당-안뒤-자연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질서에 대한 인식을 체험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올레의 일차적 목적인 방풍과 액막이 기능 이외에도 긴 여정을 끝낸 후 맞을 수 있는 사적공간이 주는 내밀함과 안정성에 대한 올레의 미적 기능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15) 홍종수 외, 1991, 제주도 민가의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16) 위와 동일.



<그림3> 제주 민가 공간질서의 체계¹⁷⁾

또한 김홍식(뿌리깊은 나무, 1983)에 따르면 올레는 길이 끝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간에 항상 새로움을 부여하여 변화를 가져오며 제주의 초가, 돌담과 함께 마을 안의 공간감을 음악성으로 승화시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집의 구성을 음악의 구성에 전주에 도입부-전곡부-발전부-종결부로 구분하고 도입부는 집의 들머리인 '올레'가 해당되며 말판돌¹⁸⁾, 어긋돌¹⁹⁾, 정낭, 다리판돌²⁰⁾로 구성되며 지루하듯 느릿느릿 길게 유도되는 길로 표현된다. 전곡부는 '올레목'에 해당되는데 휘어지며 유도되던 올레가 거주공간에 이르면 끝부분을 꺾이게 해서 공간의 전환을 꾀하는데, 이 때 올레의 방향이 바뀌고 어두운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여 시야가 트이며 밝아진다. 발전부는 '잇돌'로 구성된 마당으로 밝고 아늑한 분위기로 발전한다. 종결부는 '집안'과 '안뒤' 같은 주거공간으로 안정과 휴식으로 맺어진다(그림3). 강문규(2006)는 김홍식의 올레공간의 민적, 음악적 기능에 대해 동의하며 올레를 포함한 마을 안길과 우영에서 볼 수 있는 식생과 공간적 구성, 공간을 특징 있게 하는 부속물²¹⁾을 제주식 정원으로 해석하였다. 토지가 좁고 물이 귀한 제주사람들이

17) 김우경 외, 1999: 7

18) 말의 고삐를 매어두던 돌

19) 민가의 입구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돌.

20) 비가 올 때 흙이 신발에 묻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띄엄띄엄 징검다리 형태로 놓여진 것을 말하며 잇돌은 징검다리의 형태가 연이어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일본전통정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디딤돌에 해당되며 이제껏 일본 茶庭에서 비롯된 일본고유의 정원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Kuck, 1989; 심우경 외, 1999 재인용.)

21) 말판돌, 어긋돌, 정낭, 잇돌, 섬팡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마다 집안에 정원을 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마을 전체의 공동 정원을 위해 공간마다의 실용성과 기능을 살리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마을 곳곳에는 연못을 파 놓았고 수양버들과 연꽃을 띄워 운치를 느끼게 했으며 마을 안의 동산 위에는 팽나무, 느티나무를 심어 모임공간의 기능을 하게 하여 공동의 정원과 길, 공동의 신앙과 공동의 나무를 활용한 거대정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²²⁾. 이러한 관점은 심우경 외(1999)의 견해와도 일치하며 제주도(1996)에도 '마을 어귀의 팽나무나 느티나무 주변에는 예로부터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대를 만들었는데 제주의 현무암은 인위적으로 깎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자연 깎고 다듬는 과정(공력)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다. 이를 통해 대체로 제주에서는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도 경제적 부가 축적되던 18~19세기에는 가능한 했던 것으로 20세기 들어서면서 생존조차 어렵게 되자 중단되었다.

김은석(1998)은 마을의 공간구조를 초·중·결장으로 구분하고 각 장을 이야기의 연결 구조인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구분하여 마을의 공간구성에서 주민들의 생태학적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민의 일상의 궤적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 올레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올레는 길이라는 형태적 특성을 통해 각 공간의 기능과 공간들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 함축된 표상으로 인지된다. 올레는 거주자에게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공공의 공간에서 내밀한 안식처로의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 주어진 척박한 환경을 거주하기에 알맞도록 영역화 하는 과정이 올레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22) 이러한 관점은 심우경 외(1999)의 견해와도 일치하며 '제주의 민속 IV-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문화자료총서』(제주도, 1996)에도 '마을 어귀의 팽나무나 느티나무 주변에는 예로부터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대-예를 들어 명월대, 청풍대-를 만들었는데 제주의 현무암은 인위적으로 깎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자연 깎고 다듬는 과정(공력)을 드릴 수 밖에 없다.'라는 설명과 함께 '대체로 제주에서는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경제적 부가 축적되던 18~19세기에는 가능한 것이었으나 20세기 들어서 생존조차 어렵게 되자 잠시 중단된다'라는 설명으로 '제주식 정원'에 대해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에서 이웃, 마을로 뻗어나가는 과정이 올레라는 흐름 속에서 필요한 공간적 구조물들을 통해 기능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공간마다 필요한 행위들이 점차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인간관계에 따라 적절한 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올레는 흐름의 질서체계를 공간상에 능동적으로 조성하여 개인 혹은 일정한 집단만의 환경을 구성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다.

김홍식(1992: 674; 김은석,1998: 9 재인용)은 굽은 길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시각표적에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시각표적은 건축을 공간예술에서 시간예술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길은 시간예술에 울동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울동이 부여된 순간 대상은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시작된다. 변화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을 동화시키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간을 차지하며 걷는 행위는 시간을 부여한다. 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넓고-좁음, 밝고-어두움, 깊고-얕음, 평평하고-울퉁불퉁한-부드러운의 모든 감각들은 그 곳을 지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싹함, 따뜻함, 스산함, 평화로움 등의 다채로운 감정을 유발한다. 그리고 길을 통한 경험은 누적의 층을 만들어 장소성이 될 것이다.

올레는 마을에서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장소감을 공간에 부여하고 식재와 인공물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에 맞는 기능까지 부여하였다. 마을의 입구에서 자신의 집 뒷마당까지 올레는 각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인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이고 연쇄적인 내부와 외부로 구성하는 환경이 되었다.

3) 관계의 공간

이희승(1979)의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오래'란 ① 동네의 몇 집이 한 골목으로, 또는 한 이웃으로 되어 사는 구역 안, ② 古語로서 -기능적인 면보다는 형태적으로 크다하여- 대문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올레는 중세어에서 연

유한 '오라', '오래'이며 '오래'는 문(門)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오래가'가 제주에서는 '올레'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즉 가옥을 포함한 어떤 영역이 있고 이 영역과 바깥 사이의 출입구에 門體가 달려 있으면 里門²⁴⁾이라 하고 없으면 '오래'인 것이다. 출입구가 아닌 출입로로서 올레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주의 지형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문체를 달아 里門을 달게 될 경우 여름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나무가 쉽게 부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우설이 심한 지역이라 강풍에 의해 부서지기 쉬운데 이 때 대문이 부서지면서 연결된 올담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송성대, 1993:155). 이에 제주도에서는 대문을 달게 될 경우에도 里門間이라는 부속체를 만들어 별도로 설치하였다.

따라서 제주에서 올레는 넓직한 문 대신 정을 두어 집으로 들어서는 대문의 역할²⁵⁾을 하게 했다. 진성기(제민일보, 2009. 4. 7)에 의하면 올레를 '정'이 있는 장소의 이름이라 하며 '올레' 또는 '올래'라고 하였다.²⁶⁾ '올레'와 '

23) 제주올레 홈페이지 www.jeuolle.org

24) 里門은 '一里之門'이라 하듯 하는 것처럼 '한 마을과 외부세계와를 연결하는 문'을 지칭하였지만 오래에 개폐하는 문짝이 있을 때는 가옥 건물의 상방(堂·廳)의 문을 大門이라 하는 것과 대조하여 쓰였다. 즉 大門은 옥내와 외계(마당)간을 출입하는 양 쪽의 문을, 里門은 住家라는 입체적인 공간과 외계 사이를 출입하는 양 쪽의 문을 의미하여 구분했었지만 근래는 혼용하고 있다. 마을의 입구인 한자어 洞口도 우리말로는 '오래'이지만 거기에 문이 달리면 里門이 되고, 도회지에 성문이 있게 되면 이것도 기능상으로는 里門이 되는 것이다.(송성대, 1993:153, 재인용)

25) 일반적으로 대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里門間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북서풍과 거의 직각을 이루는 한라산 북동쪽의 구좌읍 월정리에서부터 북서쪽의 한경면 신창리까지의 해안지역에는 대문의 기능을 하는 이문간이 있다. 이 지역은 겨울철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곳으로 바람에 동반된 염분 때문에 방풍림을 조성하기 어려워 이문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문간은 높은 돌담과 함께 외부와 마당을 차단하여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김기탁·이승호, 2001: 7). 또한 육지와 교류가 많은 해안지역에 외지인의 출입이 많고(송성대, 1995), 어촌의 특성상 가옥들이 밀집해 있어 올레를 여유 있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26) 2007년 9월 올레길(코스)의 개장으로 그동안 혼용되었던 '올레' 또는 '올래'로 혼용되었던 명칭은 '올레'로 단일화 되었다. 이는 올레가 이전에는 공식적 용어의 중요정보보다는 생활 속의 용어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이사장 서명숙씨의 제창에 따라 코스가 개장된 이후 사회적 통용과 경제적 가치로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단일 기표로서 이름이 필요해짐에 따라 올레길의 '올레'라는 표기가 일반화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참고한 여러 논문이나 향토지에 따르면 모두 '올래'라 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구체적 지역사례로서 올레 담론은 올레길(코스)이 만들어진 연유와 관련되므로 '올레'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정'이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한 것이다. 여기서 '정'은 정낭과 정주목을 의미한다. 올레의 입구에는 양쪽에 나무나 돌로 된 넓직한 기둥이 세워지고 둥근 구멍이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까지 뚫려 있어 그 구멍을 통나무로 꿰어 걸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정낭' 또는 '정살'이라 한다. 그리고 정낭(정살)을 끼우는 넓직한 기둥을 '정주목(석)'이라 이른다(현용준, 2004: 77).

일찍부터 '정'은 제주를 대문이 없는 섬으로 알려지게 하였다. 이문호(1993: 91-95)는 정낭을 세계 최초의 '3bit' 문이라고 하였다. 3~4개의 통나무를 통해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외부에 알렸던 정낭에서 'Yes'와 'No', 혹은 'On'과 'Off' 원리를 발견했다. 정낭은 통나무가 한 개만 걸쳐져 있으면 주인이 잠깐 외출한 것으로, 두 개면 좀 긴 시간 외출을, 세 개 모두 걸쳐져 있을 경우 종일 출타 중임을 나타낸다. 그는 정낭의 과학성을 주목하며 정주목에 걸쳐진 정낭의 개수 3을 디지털 2진 3비트로 간주, 정낭의 통신 시스템이 디지털 통신의 효시가 된다고 보았다. 3개의 통나무로 주민들 간 통신체계가 구축됐던 것이다. 미풍양속의 하나로 알고 있는 '도둑이 없는' 삼무정신은 정낭과 관계된 이웃간의 믿음과 제주사람의 선량함을 보여주는 문화 코드이다.

올레는 공적공간에서 사적공간으로 점진적 변화를 이루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도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심우경 외 1999: 7) 드러냄을 위한 흐름의 공간이다. 활짝 열어젖힌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감춰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김순이, 2009) 시선의 차단도 없으며 경계의 엄격함도 없어 분명하게 영역을 가르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 곳은 家神이 정좌한 신령의 공간이기도 하며 아이들의 놀이공간이자 성별에 따른 정보 교환의 장²⁷⁾으로도

27) 올레와 올레가 만나는 부위나 올레의 어귀에는 반드시 녹음수가 심겨지고 그 밑에 앉을 수 있는 반석이 놓여 남성들이 이용하고 여성들은 올레 안의 지형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벤치형식의 돌담이 자연스럽게 쌓아지는 공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남녀의 구분을 명시하기도 한다(심우경 외, 1999: 8).

작용하였다. 제주는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가난한 살림에 서로 돕고 사는 삶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혼인도 대부분 마을내혼으로 이루어지고 친척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이웃을 팬당²⁸⁾으로 여겨 손위 어른을 '삼촌'이라 통칭하는 문화가 있다. 특히 같은 올레를 사용하는 보통의 3-4가구에서 많게는 7-8가구 이내의 사람들은 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하객이나 조객을 맞을 수 있게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도 당연히 여겼다.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올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도로와는 다르지만, 완전히 사적이지도 않은 공간이었으며 이런 막다른 도로의 형태는 도로를 공유하는 이웃을 형성하게 하고, 안정적인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좋은 이웃관계를 만들어주었다(제주도·국립민속박물관, 2007: 190).

통상 올레라고 할 때 개인주호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극히 개인적인 길을 말하기 때문에 공용공간이기 보다는 사적인 공간 개념이 강하다. 그렇지만 제주인은 올레라는 흐름의 공간에서 공동체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의 내밀한 삶을 살기도 하였다. 외관상으로 올레는 길이며 기능으로는 올담의 연장으로 사적 공간으로서의 영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물적 교류와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유대감을 교류한 공간으로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사람을 둘러싼 모든 육체적·정신적·감정적인 드나들이 활발했던 공간의 성격을 갖으며 공동체라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28) 팬당은 한문으로는 권당(眷堂)으로 일가친척(一家親戚)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륜행실도》, 《불설대부모은중경언해》와 같은 문헌으로 전해올 뿐, 현실에서는 죽은 말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 권당이 팬당(혹은 권당)이 되어 육지의 친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아버지 쪽의 성팬당은 기본이고 어머니쪽 외팬팬당도 있으며 처팬당, 시팬당까지 지평을 넓혀 부모세대의 모든 친족원은 성별이나 촌수에 상관없이 삼촌으로 칭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팬당이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돈에 팔촌으로 걸린 팬당'이라는 말도 곧잘 사용된다. 이는 척박하고 가난한 살림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팬당이야말로 필수불가결한 공동체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주강현, 2011:244-250).

4) 신앙과 제의의 공간

제주 민가의 공간구조는 한반도의 여타지역과는 다른 규칙을 갖는다. 일반적인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주거공간이 배치됨은 물론 대부분의 집들이 남향이라는 것과는 달리 제주 민가의 주거배치는 해양성 기후에 따른 지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제주에서는 지맥보다는 지세를 살피고 개인의 명운에 따른 방위를 지정하여 건물을 배치한 것(제주도, 1996: 433-434)을 미루어 볼 때 척박한 환경에 기반을 잡고 정착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전통 주거 공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실용적, 물리적 측면의 기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양식은 제주인의 사상과 신앙, 세계관이 구체적 은유를 지어내며 물적 형태와 환경에 결부된 의례행위를 통해 실질적 의미를 만든 것(정영철 외, 1991: 74)이기 때문이다. 거주공간은 척박한 환경에 대비하여 가장 안정된 장소로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므로 거주공간과 관련한 생활양식은 장소성과 관련된다.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당장의 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가족의 무사안녕과 직결된 실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속신앙은 거주와 아주 밀착된 형태로 존재한다.

제주에서는 마을 공동의 당(동제당)보다는 가내신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더해서 '어귀'를 말하면 집 올레 앞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귀를 지칭할 경우 마을의 입구인 동구를 떠올리지만 제주의 경우 마을의 입지가 거의 평지에 위치하고 어귀 역시 설정하기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명쾌하게 동구를 설정하고 여기에 장승 등의 수문장신을 배치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이다(제주도, 1996: 438). 이에 따라 올레는 마을의 동구와 같이 집으로 들어오는 나쁜 액을 방지하는 곳으로 주택의 장승이나 수문장신의 역할을 했다. 올레의 존재는 집안의 중심에 있는 문전신이 좌정하는 장소를 암묵적으

로 함축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문전신이라는 존재가 제주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문이라 하면 외형적으로는 정낭 또는 이문간을 지칭하겠으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주공간에서의 대문은 문전신(성주신)이 정좌하고 있는 상방 문을 '대문'이라고 한다. 안거리의 상방 문은 마당과의 관계에서 안-밖이 되고 마당은 주거 공간 안의 모든 시설에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복합공간인 동시에 가옥구중의 가장 중심이며 성스러운 곳을 알 수 있다.

올레는 제주의 지형적 공간이 뚜렷한 지맥이나 형국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영역감을 갖기 위해 의식적으로 마련된 공간 사이의 경계이다. 일례로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올레의 어귀에는 어긋돌을 놓아 표식을 세웠으며 올레의 끝부분인 올레목은 '목'이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부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 장소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레에서 방향을 꺾어 들어가게 했던 것은 안과 밖에 대한 경계공간으로 구분지은 것이다. 제주 사람들이 개인의 거주 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을 조심스럽게 생각한 까닭은 의식적은 공간 구조의 존재와 그 공간의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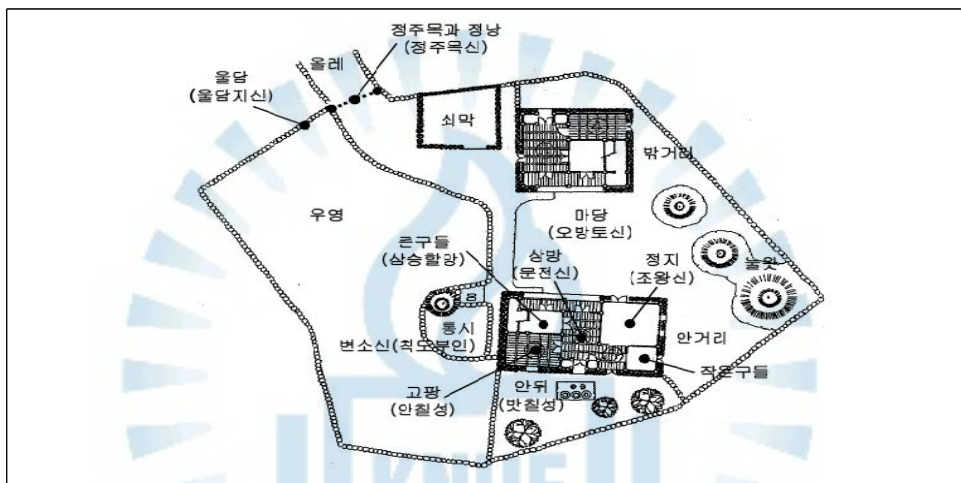
올레는 동네와 주거공간을 이어주는 환경이자 사이공간으로 영역감을 갖는다. 상방-마당-올레-마을-주위의 자연이란 연쇄에서 각 부분은 안이며 동시에 밖이 된다. 가장 안쪽으로 향하는 상징적 통로인 수평축은 동구-올레-정낭-마당-상방으로 다단계적으로 접근되며 그 단계마다 상징적인 문(opening)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다(정영철 외, 1991: 76). 각 영역은 열린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나 공간마다의 경계를 알리는 시설물을 통해 공간과 공간 사이에 경계가 존재함을 알린다. 이는 공간마다 갖고 있는 장소감으로 인해 극적 분위기를 더해주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공간이 갖고 있는 기능적 요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올레는 공간마다의 기능을 단절시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서로 연쇄적이며 상대적

인 의미의 환경으로서 기능함을 알려준다. 인간의 가장 작은 장소를 신체라 한다면 그에 대한 가장 작은 환경은 옷이 된다. 즉 환경은 ‘둘러싸고’있다는 의미로 인간이 거주하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나 마을, 보다 큰 범위의 지역사회에 대해 완충의 기능을 하는 연결의 공간이자, 사이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올레의 이런 의미는 祭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의 역할은 공간마다 좌정하고 있는 家神의 직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형준(2007, 2011)은 제주민가의 공간 구조와 의미 구조를 관련지어 관계를 도출하고자 ‘경계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제주의 전통 주거공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양택론이나 성리학, 예학 등의 논리를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제주가 가졌던 신화나 제의 등이 주거공간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문전본풀이’는 공간의 역할과 중요성이 신화와 제의의 이야기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거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는 문전신인데 상방은 문전신의 중요도에 따라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상방이라는 공간에 버금가는 정지라는 공간은 그 중요성을 가신의 위치에서 뿐만아니라 상방과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전신은 어머니를 지키고자 하는 아들로 조왕신은 아들에 의해 재생되는 어머니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3>과 같이 본풀이에 나타나는 家臣의 위치와 관계는 각 공간의 위치와 관계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어떤 공간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정해지지만 공간의 의미와 지위는 현실세계를 벗어나서 그 집단이 공간에 담고자 하는 의미로서 세계관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의미와 의식을 내포한 상위의 영역으로 향하는 경계로서 ‘경계성’을 갖는다. 제주초가의 경계는 가신들과 소통하는 경계이다. 인간의 공간적 경험이 경계성을 지니게 되면 인식적 경험으로 전환되어 감각이 아닌 인식으로 이해되는 공간이 된다. 물리적 공간이나

현실적 공간에서 비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적 경계성에 대한 인식은 집단적, 사회적, 관습적인 제의를 통해서 계속 의미화된다. 따라서 경계성은 경계의 공간을 경계 공간으로 만든다. 주거공간의 정체성이 신화나 제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제주의 주거공간이 소통이 공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올레는 바로 경계공간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 문전본풀이와 제주전통민가의 공간구조²⁹⁾

정영철(1991)은 무질서하고 끊임없이 위험이 닥치며 부정확한 외부 속된 세계에 대해 내부를 정화하고 정결케 하여 성스런 공간으로의 유지를 바라는 행위로서 무속제의를 이해하였다. 제의장소에 대해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바르는 일, 댓잎에 淸水를 찍어 뿌리거나 불을 붙여 주위를 돌아 태워버리는 물과 불을 통한 정화 행위는 제의공간으로서 일상공간을 정화시켜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하는 의식을 의미하고 일상공간과 다른 성스런 공간임을 상징한다. 제의가 이루어지는 밤은 공간질서가 흐려지는 시간으로 일종의 카오스

29) 김형준, 2007,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상태이며 일상의 연속적 시간과는 다른 시간으로 생각된다. 제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주거는 공간과 시간적으로 초월적인 세계와 소통이 가능한 출구로 이해되어 '천지가 혼합되었구나, 천지개벽이 되었구나(중략)'로 제주 무가 초감제³⁰⁾는 시작된다. 개인의 주거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택, 제삿굿 등의 제의는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부정을 막고 주거공간질서를 재구축하려는 수행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지켜야하는 금기나 반복되는 의미화는 제의를 주관하는 심방³¹⁾에 의해서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가족들의 참여로 지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제주 무속신앙이 쇠퇴하는 이유도 미신으로 치부하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던 제의를 실행하는 일이 자취를 감춘 때문이기도 하다. 제의는 완결을 향한 현재에서 행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가족구성원 또는 마을 구성원의 화합을 향한 상징적인 미래의 시간을 의미한다(이미원, 2010: 12). 따라서 제의를 실행하는 일이 일상에서 사라진 이유로 공동체로서의 집단의 범위가 축소했다는 것, 화합의 기능을 하는 다른 양식이 생겨났다는 것, 가족이나 마을의 안녕을 주술적 효능을 기릴 만큼 인식 불가능한 것이라곤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의 공간이 사라진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의 신성성과 인간의 삶이 일치되는 일상성은 척박하고 고달픈 삶에서 주술적 경험을 통해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며 정화되고 안정된 장소로서 거주공간을 가꾸고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올레는 거주하는 모든 장소마다 신이 있다고 믿고 금기를 따르는 삶이 일상화되었던 제주인들에게 심방의 마중 없이는 신령도 곧장 들어올 수 없는³²⁾(진성기, 2009) '성소'의 시작이며 경계공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용준(2004: 77)은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정살지신의 공간 경계성에 대해 주목한

30) 모든 곳의 첫머리에서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

31) 굿을 주관하는 무당

32) 진성기, 올레란 무엇인가, 한라일보, 2009. 4. 17.

다. 이 신화에 나오는 정주목은 단순한 실용물이 아닌 신이 존재하는 상징물이며 그런 이유로 '정낭'이 걸쳐져 있으면 신이 통행금지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외부인에 대한 금기의 표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의 대문과는 달리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단헌' 대문이 아니라 단절 없이 열려 있는 올레와 정낭이라는 경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영역을 연결하거나 분리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경계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김형준, 2007).

또는 거주공간을 담당하는 신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주목하여 신화를 창조한 집단의 거주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이수자, 2001). '문전본풀이'를 집구조와 관련하여 볼 때 실제적 주인공인 막내 아들은 문전신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며 그 외의 여섯 형제는 오방토신과 뒷문신, 아버지는 정살지신으로 남성들은 집의 외부 및 경계지역에서 집안을 보호하는 자, 집안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 자로 인식된다. 이는 집 외부 공간 및 집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경계지역으로서 '문'의 공간을 남성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집 내부 공간에서 母神은 부엌의 조왕신이 되고 妾神은 측간신으로 정지와 통시를 여성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게 양분과 원동력을 주는 물과 불의 신으로 안주인으로서의 여성의 기능을 의미하며 정지와 기능상 반대의 의미를 가진 통시는 서로 가까울 수 없는 공간이지만 먹을 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배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이러한 공간 기능상의 관계를 인간사의 가까워질 수 없는 본부인과 첩의 관계로 상징화한 것이다.

'문전본풀이'라는 서사무가와 제의의 형식을 띠고 神性은 주거공간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다. 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의는 상방의 문을 열고 문전신에게 알림으로써 시작할 수 있었으며 문전신은 정화된 공간으로 내려와 가내의 사람들의 치성을 받았다. 단지 거주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주택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것이다. 제주도 전통 주거공간은 무속의 세계구조관

이 표현된 수평축, 수직축이 교차하는 하나의 세계중심이며 성스런 영역이며 올레는 구조의 일부를 담당한다. 주거공간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삶의 양식이 된다면 과거의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변화하는 과정과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제주도 외, 2007: 158)이라고 할 수 있다.

올레는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웃과 마을이라는 중간단계를 통해 세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회적 위험이나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였다. 역으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던 의식적인 공간구조였다. 또한 공동체와 개인을 연결하면서도 구분 짓는 경계공간이었으며 성스러운 장소를 지키는 수문장이면서 자체로 생활양식을 상징한다. 올레라는 전통적인 장소성은 제주라는 시공간성을 살았던 사람들의 지리적·사회문화적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울러 절박한 필요에 의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올레는 길이자 공간이며 관계이자 양식을 나타내는 언어로 제주 사람들의 수행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다. 올레와 수행적 장소 정체성

1) 올레의 기획과 의미

제주 올레는 단지 걷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치유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의 사라진 옛길을 찾아내 본래 모습으로 되살리고 끊어진 길을 이어 제주를 하나로 잇는 행위인 한 사람이 순례의 길을 통한 경험에서 파생된 것이다.

황보영조(2010: 3-4)에 의하면 산티아고의 순례길은 951년 프랑스의 한 주교가 외국인으로서 처음 그 길을 걸었던 일을 시초로 한다. 그 후 11세기에 외국인 순례자들 수십 명이 산티아고의 콤포스텔라 성당을 방문하였다. 순례

자의 길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성 야고보의 유해가 묻힌 성지로 가기 위한 종교적인 의미의 순례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종교에 상관없이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순례자라 자처하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위해 걷는 행위를 실천하고 있다. 1100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순례의 의미는 종교적 관점에서 한 개인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인생의 전환점³³⁾(김봉현, 2010)'으로 의미를 바꾸고 있다.

의미가 변화한다는 것은 행위가 시공간의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반복 실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는 시공간적 의미로 이해되며 그 곳에는 항상 행위 주체와 수행적 장소 정체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실천으로 올레길이라는 장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걷는 행위를 통해 의미를 만드는 행위주체들을 모으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올레가 초기의 의도처럼 치유와 안식을 위한 길이 되는 일은 그 길을 걷는 행위 주체들이 실천과 관련이 되며 제주라는 시공간적 맥락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길을 걷는 동안 성찰, 치유, 안식의 과정으로 올레를 의미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올레를 통해 수행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다.

2) 올레와 장소 정체성의 문제

올레는 제주라는 사회-공간적 구조에 놓임에 따라 제주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올레길에 참여하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장소성의 생산을 말하며 수행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 올레는 '걷기'라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행위와 관광지라는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많은 참여를 일으키고 있다. 공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관여할 여지가 많아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레를 둘러싼 많은 주체들을 발견할 수

33) 김봉현, 순례자들은 산티아고 길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불러, 제주의 소리, 2010, 11. 7.

있는데 처음 올레를 기획한 사람과 집단, 올레의 초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를 만들어낸 사회 유명인사들, 올레길을 찾는 관광객, 지역민, 지역 정부에서 국가 행정에까지 이른다. 자아와 동일시되는 장소로 행위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의미를 구성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각 집단의 의미화 과정으로 올레라는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제주 올레는 초기의 기획부터 대중에 알려지기까지 많은 사회적 명사들과 그들의 의미를 일반화시키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이 과정에서 제주 올레는 별다른 갈등 없이 지역정서에 흡수되었다(이영운, 2010: 325). 제주의 전통적 거주공간으로서 올레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부분에서나 올레라 불리는 길과 아닌 길 사이의 선택과 배제에 따른 갈등상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주의 길에 형성된 정체성이 없었다는 사실이다(이영운, 2010: 326). 오히려 제주 올레가 대중화되면서 제주사회에 경제적 효과 등의 파급력을 미침에 따라 전통적 올레가 갖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러 향토학자들에 의한 비판적 입장은 올레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장소성이 본래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원형질을 훼손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교육적 입장에서는 제주의 올레가 올레길이라는 의미로만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따라 문화전수의 측면에서 악영향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제주올레의 경제적 효과의 강조와 대중화에 따라 현재의 장소성이 만들어낸 암묵적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집단은 전통적 의미의 올레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서 주류적 의미로 부상하지 못해 현재 제주 올레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는 그 힘이 미미하다. 이들은 올레와 관련한 영역화의 투쟁에서 포섭되지 못한 소수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올레길이라는 장소성이 자생적인 의미화를 결여하고 있으며 단지 지역민이 얻게 될 경제적 효과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올레길이 상품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올레를 둘러싼 다

양한 의미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위치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레는 제주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가치가 있으며 지역민에게 경제활동의 장으로 의미가 있다.

3) 올레와 관광 제주

제주 올레의 모델이 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에 위치한다.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로 오랫동안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문화적 주변부로 폄하 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유럽 각국에서 산티아고로 향하는 50여개의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길이만 해도 1000km에 이른다. 최초로 유럽문화 관광명소로 지정된 곳이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³⁴⁾(김봉현, 2010). 과거의 문화적 주변부에서 오늘날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는 장소로 변모한 것이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순례길의 장소성을 획득하는 일은 자발적이고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국가의 쇄신을 주창하며 정부차원에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관광을 조직하였으며 교회가 앞장선 결과이다. 관광을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식하고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 왕립 관광실을 두어 조직적인 홍보를 실시한 사실은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직적 뒷받침과 행정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황보영조, 2010: 144-146). 또한 교회의 관여는 기독교라는 문화적 유대감이 스페인과 유럽을 잇고 있음을 알게 한다. 현재 순례자의 길은 매우 자발적인 문화양식을 띤다. 중간 지점마다의 안내소, 휴게소, 숙박 등이 이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비용지불이 필요치 않으며 길을 걷는 동안 다시 만난 사람들은 오랜 친구인 양 해후를 한다³⁵⁾. 순례자의 길을 둘러싼 자발적 인간 네트워크의 의미는 외양적 서비스가 아니라 행위를 일

34) 김봉현, 순례자들은 산티아고 길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불러, 제주의 소리, 2010, 11. 7.

35) MBC 특선다큐-길, 산티아고부터 올레까지, 2010. 12. 29.

으키는 장소 애착과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장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장소 정체성에 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느끼는 진정한 휴식과 자유, 행복의 걷기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장소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관광지를 장소로 변화시키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은 제주 올레의 모티브를 제공한 측면에서 비교 가치를 갖는다. 섬이라는 지리적 주변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국가주도의 관광산업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공통점으로 작용한다. 조성윤(1995: 83; 이보라, 2010: 42 재인용)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관광이 비교우위 산업이 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적 불황과 경공업 중심의 수출정책의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정권의 위기 타계와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목되었고 이 때 경주와 제주도가 선정되었던 것이다. 관광이 특화산업이 됨에 따라 제주의 산업구조도 이에 걸맞게 3차 산업위주로 재편되었다(이미라, 2010: 44). 이전까지는 제주도가 1차 산업 기반의 감귤농사와 몇 가지 밭작물로 부족하지만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외지의 자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구도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역민의 생활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가 점차 외부인의 자본과 욕망을 통해야만 '현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즉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인간을 특정 상황에 놓이게 만듦으로서 삶의 양식을 고정한 것이다(McCormak, 2009: 134). 따라서 지역민과 외부인의 관계는 서비스의 제공-비용의 지불관계로 정해진다.

제주의 사회·문화적 양식에 대한 자체적 고민 없이 관광이라는 이미지와 서비스의 경제성에만 치중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스페인의 국가 주도적 관광정책이 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관광지가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변부로서의 위치를 벗어낸 것과는 다른 결과인 것이다³⁶⁾. 즉 올레의 형성

36) 스페인은 관광을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국가적 쇄신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20세기 초 스페인의 관광은 근대적 의미를 갖는데, 관광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사적과 문화유산의 복원, 공공산업의 추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가의 문화와 품격을 높이고자 하였다. 최고의 국영호텔은 역사

과 관련하여 장소 내부자의 입장에서 주도적이거나 자생적 의미화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일은 제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행적 주체가 되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을 통해 거주하는 곳으로서의 장소 애착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양식으로서 제주의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결과인 것이다.

올레길이 외부에 알려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주위에 생겨난 할망 민박집, 버스가 다니지 않아 생겨난 올레 택시,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올레 코스와 연계한 매일올레시장 등은 올레의 가치나 제주의 장소성에서 비롯된 풍경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경제행위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박근수(2010: 101)에 의하면 기존의 제주 관광은 승용차를 타고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는 점(點)이식 관광형태였다면 올레길 걷기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선(線)의 구조로 이루어진 관광형태이다. 점이식 관광의 경우 대규모의 자본 주체가 조성한 시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올레길은 마을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에 따라 지역민의 소자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올레길을 통해 외부인과 지역민의 관계가 여행객(소위 올레꾼)과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올레의 장소 정체성은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주민이 되는 것은 그 장소의 거주자가 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해 동등성을 확보하는 일을 전제로 한다. 제주 올레가 지역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대신하고 있다면 올레길 위에서 주민의 장소 정체성이란 소외된 것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적 건물을 복원·개조하여 네트워크화한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광수입이 국내 총생산의 0.1퍼센트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광지가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해수욕을 하는 동기가 치료에서 휴양으로 바뀌면서 온 몸을 가리는 복장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었으며 부유층에서는 갈색피부가 유행하여 피부를 많이 노출시키는 수영복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또한 군사 쿠데타와 같은 내전 중에서도 관광의 전쟁루트를 계획였다. 국민진영이 정복한 북부 도로를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함으로써 '최근 정복한 지역이 평온하고 질서 정연함'을 확인시켜 정치적 선전을 위해 쓰이기도 하였다(황보영조, 2010: 144-156).

전통의 올레가 연결의 공간으로 개인과 개인, 마을, 세계를 이어주던 것처럼 장소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조직으로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정부의 '제주 올레 퍼주기식 예산 논란(백금탁, 2010)'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 올레가 관광객 유치 등 올레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은 사실이지만 내생적인 경제로서 정착할 수 있을지는 그에 대한 지역 내부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는 실정은 아니다. 예전 제주가 관광에 의존함으로써 관광객이나 외부 기업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이 어느 한쪽에 대한 특화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4) 수행성에 관한 행위 주체의 문제

장소 정체성의 수행적 구성을 수행적 장소 정체성이라 하였다. 그리고 수행성은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장소를 구성하는 데 수행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장소를 인간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다. 지리적 자아를 나타내는 장소는 독특한 경관을 바탕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질성을 요구하는 사회-공간 구조에 대해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행성은 고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공간 구조 자체가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하며 장소나 주체라는 개념도 변화 가능한 위치로 파악된다. 결국 장소가 사회적 구성물이 되는 이유는 사회-공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성과 다원성을 획득하고 정당화하는 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위는 장소를 구성하는 구체적 전략이 된다.

행위를 통해 장소를 구성하는 것은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회-공간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조를 생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장소임을 감안할 때 개별성을 획득하며 장소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수자성에 있다. 하지만 소수자성을 행하여 정체성을 구성하고 주체성을 인정받는

것이 쉬울 리는 없다. 자기화 된 장소를 위해 일상적인 행위의 실천은 중요하며 그 이유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은 제주라는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수행적 장소 정체성을 발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올레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장소성이 아니며 의미화 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 인사나 언론에 의한 담론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다. 즉 치유와 성찰, 안식과 평화라는 의미의 제주 올레는 지배적인 사회-공간 구조에 의해 이미 수용된 장소성이다. 기획되던 초기부터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제주 올레라는 장소성을 획득한 주체는 사회의 유명 인사와 언론이었다. 이들의 공언을 통해 올레 걷기의 행위가 가능했으며 개별적 의미를 구성할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올레길의 사회적인 의미가 형성되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지며 새로운 올레길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소외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이영윤, 2010). 올레가 상품화·상징화됨에 따라 마을길이 올레가 되는 일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제주올레가 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편입되어 인정받고자 하는 소수자의 심리를 보여준다.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도 마을을 찾았다. 며칠 전 강정마을회 강동균회장이 서명숙 이사장을 찾아 해군기지 예정지인 중덕 포구를 올레코스(제7코스)에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자 서이사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중략) 주민들은 서명숙 이사장으로부터 중덕 해안을 올레길에 포함시키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기뻐한다(장태욱, 2009; 이영윤, 2010: 320 재인용).

더 나아가 제주의 모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 올레 하나로 통일되고 있으며 올레는 모든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1사 1올레 협약·1마을 1올레 협약, ‘제주올레’ 기행 점자도서 발간, 치안올레·당을

레·다크올레, 올레빵·올레국수, 올레소나이, 매일올레시장 등의 예³⁷⁾는 제주의 올레화로 풀이된다.

따라서 올레의 장소 정체성이 개별 참여자의 수만큼 다양하며 걷기라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 획득된 것이라도 수행적이라고 할 수 없다. 수행적 정체성이란 사회-공간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일상의 행위를 통해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기 뿌리를 갖는 것이다.

5)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생산

제주올레는 더 이상 생활 속에 쉽게 걷는 평범한 '길'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에 의해 정의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기호이자 상징이다. 따라서 장소, 장소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제주라는 공간에 산다는 것 이상을 추구해야 장소 주체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장소 조건인 물적·영토적 조건을 넘어 은유적·심리적 의미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거주를 통해 장소 주체이기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 주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Harvey(박영민 역, 1995: 32)의 '이미지와 담론의 생산이 모든 사회적 질서의 재생산 및 변동의 요체로서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은 바로 제주라는 공간에 살고 있으나 소수자로 배제되어 있는 지역민에게 필요한 장소인식이다.

장소는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와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결합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이진희, 2006; 한지훈, 2011: 2 재인용). 제주올레를 포함한 제주라는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

37) 제주올레의 대중화로 전성기를 맞게 됨에 따라 제주에서 발생하는 걷기 관련 정책이나 행사에는 습관적으로 '올레'라는 관용어가 붙고 있다. 즉 다크올레와 당올레는 각각 제주 4.3사건 당시 피해지역을 올레코스로 조성하는 것과 제주 민간신앙과 관련한 답사행사를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치안올레길은 관할 경찰서와 주민이 관내 범죄 발생지역을 걸으며 범죄예방요령을 홍보하는 등의 캠페인을 일컫는다. 또한 올레소나이(남성을 지칭하는 제주어)는 제주의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국을 일주하는 사람들을 기사한 것으로 제주와 올레, 그리고 걷기 행위는 '올레'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해서는 지역민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험이 투영된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공간적 실천을 통한 장소 건설이며 장소 정체성의 생산의 의미이다. 제주올레에 지역민의 시각에 따른 의미가 없다는 것은 지역민의 제주올레에 대한 행위는 경제적 활동이거나 그에 대한 보조행위로 올레 걷기 축제를 위한 '클린 올레'활동, 올레를 사용한 상표 출원과 같은 것이다. 현재의 여러 활동들은 외부인에 의해 이미 생성된 장소 정체성과 그 질서를 다시 재현해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역민에 의한, 거주자가 주인공인 장소를 생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장소가 은유적·심리적 의미의 동질성이 되었다면 거주도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장소가 인간의 주관적 의미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집과 같은 일상적 삶으로 이루어진 친밀하고 사적인 활동들로 가득한 곳에서 의미화 된 것이다. 그렇다면 거주는 일상적 실천에서 비롯되며 지역은 일상적 실천이 공유될 수 있는 집단으로 존재할 것이다. 임병조 외(2007)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주체(subject)의 주관성(subjectivity)'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특정한 지역을 역동성과 가변성을 속성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구성물의 변형 과정에 개입되는 지배구조(hegemony)와 권력관계(power relations)도 반드시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정한 지역은 '그곳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이고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우리들(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 구성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일상적 실천을 공유하면서 동일성을 획득하게 되는 주관성인 것이다. 아울러 주관성을 공유하는 지역이란 공동체 내에서의 소속감과 애착을 근원으로 이루어짐으로 장소 정체성으로 치환된다. 조현주(2008)의 '가변적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의 공유

를 통한 주관성의 획득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본래 이 용어는 디자인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Flexible Thinking)와 역동적 정체성(Kinetic Identity)을 추구하며 기업이미지 마케팅에서 효과적으로 응용된다. (중략) 가변성이란 변경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하며,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주의 지역 정체성은 바람, 해안경관, 바다, 오름 등의 자연 환경이나 삼다도, 돌, 섬과 같은 고정관념에 의해 정의되어 왔음을 밝히며 '제주성, 제주다움'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며 이를 공공 디자인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문화환경요인과 생활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제주의 장소성은 가변적인 것에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장소 정체성의 다양성과 적응력의 중요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공유의식이라 할 수 있다. 친밀감, 자발성, 공유성, 주관성을 함축할 수 있는 제주의 장소 정체성이 될 수 있는 실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주올레가 과연 제주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내적인 성찰로서 지역 내 비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소정체성이 가변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시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의미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제주 현안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꼽을 수 있다. 4년이 넘게 반대운동을 하면서 도내외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하려 했다는 점과 천연기념물 제422호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곳으로 재의미화 되고 있다. 이는 외부인에 의한 '탈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결속과 자신의 삶이 터전이 보존되는 의미에서 스스로에 의한 '좀 더 나은 삶'

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반성과 자발적인 해법으로 생긴 의미화라는 점에서 공동체적 장소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결되어야 할 조건으로 찬성-반대로 나뉘면서 와해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과 그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장소 정체성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6) 올레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

올레꾼은 올레길을 걷는 사람을 말한다. 즉 올레꾼의 정체성은 올레길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주체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명명은 제주를 찾는 다른 관광객들과 차이로 인식되는 분류과정이라 볼 수 있다. 강성일 외(2011)에 의하면 올레관광자와 일반관광객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올레관광자가 제주에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개장된 올레코스를 걷는다는 점에서 인식된 것으로 생태체험을 중요한 편익으로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들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첫째, 올레관광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학력이며, 평균지출액도 일반 대중관광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방문 동기 면에서 일반관광객과 같은 일상탈출의 욕구에서 여행 참여 결정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만남, 지적욕구 충족도 중요한 동기요인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일반관광객들보다 모든 차원에서 동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환경친화적 여행태도 척도를 적용하여 대중관광객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올레관광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친화적 여행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웰빙인식에 있어서는 올레관광을 통하여 육체적이기보다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웰빙인식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레코스 걷기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일상탈출과 같은 정신적 해방감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여유,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생활습

관과 같은 '사회적 웰빙'이나 '삶의 질'적 개념으로 웰빙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올레길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보편적 문화이미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Slow City · Slow Tourism이 표방하는 느림의 미학, 생태 관광(전명숙, 2010; 최병길, 2010) 및 트레킹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이승균, 2011), 여정(journey)경험을 통한 내적 소통(이지혜, 2011)³⁸⁾ 등으로 기호화할 수 있다. 즉 올레꾼은 올레길을 걷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속도적인 삶을 지향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것이다. 올레길과 관련한 상징화가 개인의 행위를 통해 발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시되는 의미들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생성의 의미는 생기지 않는다. 수행적 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발견'하는 순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보편화 된 의미를 전복시키고 올레에 관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면 올레는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고 다시 질서를 잡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의미란, 다시 말해서 가치를 담는다 것으로 장소의 가치는 인간중심적이어야 기본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의미를 생성시킨다는 것은 시공간을 조직하는 질서가 다름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올레꾼이 된다는 것은 개별적 장소 정체성이나 사회적 장소정체성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지리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본다. 걷는다는 것은 내딛는 발걸음만큼 공간 감각을 얻음으로서 의미 감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에 따라 시각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Solnit(2003)은 걷기라는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의미의 개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걷기라는 주제는 보편적인 행동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

38) 여정은 물질적 풍요에 따른 개인과 개인의 직접적 교류의 단절로 자기의 본질을 잃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를 낚은 공간에 위치시키고 '떠남'과 '되돌아옴'이라는 여정의 경험을 통해 내적사유를 통한 주체성 회복을 의미가 있다.

여준다. 먹기와 숨쉬기처럼, 걷기에도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걷기를 통해 찾고자 하는 기쁨과 자유와 의미는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자신이다. 걷기의 방향과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신체를 통해 자신이 행위 하는 것이고 행위의 결과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온다. 어떤 의미화를 거쳐 다시 행위 할 것인지 바로 자신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의미 있는지, 자신이 획득한 장소성이 자신과 동일시 될 것인지는 행위 해 본 사람만 아는 것이다. 올레를 걸으면서 깨달은 바에 대해 최혜진³⁹⁾씨는 이렇게 말한다.

올레길도 그렇거든요. 1코스부터 13코스까지 있어요. 올레꾼들께서 물어보세요, '어떤 코스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은 자기가 걸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레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치유 능력을 느꼈다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거나 되갚은 실천을 할 수 있다. 김하영⁴⁰⁾씨 가족은 일년 전 아이의 천식으로 제주도로 터전을 옮겼다. 그리고 적어도 1주일에 1번씩은 아이들과 올레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초록 풀 위에 쓰레기들이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좋았던 기분이 상할까봐요. 보이는 대로, 다는 줍지 못하지만, 보이는 대로...(생략)

아이가 길을 걸으면서 마음은 달리고 싶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39) 다큐 3일-제주올레 72시간

40) MBC 특선다큐-길, 산티아고부터 올레까지, 2010. 12. 29.

쓰러져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오름 부분만 계속 왔어요. (중략)
지금 모습은 너무 건강해 졌어요. (올레)길에서 치유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기에 꾸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함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며 이 길 가꾸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어요.

위 두 사례는 길이 주는 성찰과 제주의 자연이 주는 치유능력으로 올레길을 의미화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올레, 그리고 제주는 자신이 행위 했던 그 만큼의 의미화를 통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다시 조직하고 실천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 올레꾼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 작용을 어떻게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행위가 되기도 한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반대되는 규범적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그 규범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관계의 구성으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것임에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계에 대한 수행인 셈이다. 또한 규범적이거나 지배적인 힘이 존재함에 따른 암묵적 효과로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항이라는 것은 반대편에 존재하는 권력과 평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적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저항한다는 것은 권력을 반대하는 행위로 결과를 통해 정의되며 권력에 좌초되거나 포섭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4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여러 형태의 정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중 올레꾼은 해군기자건설로 훼손되고 폐쇄될 위기에 있는 일강정 바다올레를 지키기 위한 행위주체로 존재한다. 올레꾼들이 제주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올레길을 걷는 행위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마음의 휴식이나 성찰과 같이 자신과 동일시되는 내부자적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적 파괴에 대한 주체로서 해군이라는 국가적 권력에

대해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올레꾼이 해당하는 올레코스를 걷는 일과 그 과정에서 반대서명을 하는 행위는 저항적 참여로 볼 수 있다.

전국의 올레꾼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강행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 바닷가의 제주 올레 7코스에서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강정해안가 인근 전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서명에 동참한 3745명의 올레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략)이번 기자회견에서 올레꾼들은 "아름다운 제주, 그 중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올레 7코스 길로서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일강정 바다 올레가 나온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야 이곳이 제주에서 하나뿐인 구렁비 바위와 천연기념물 연산호들이 바닷 속에 분포한 문화재 지역이며 제주도가 정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또한 올레 7코스를 걸으면서 이곳에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어 주변의 생태계와 길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고 아름다운 올레길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 꼭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나?"⁴¹⁾

올레꾼은 국가적 폭력에 저항하는 참여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적 행위는 올레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의미화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참여를 불러온다는 데에 있어 행위는 항상 새로운 영역으로 이어진다. 행위와 말을 통해서 장소를 의미화하게 되는 수행적 장소 정체성은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됨을 알 수 있다. Arendt(1996: 269)에 의하면 동기와 목적은 아무리 순수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결코 유일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심리학적 성질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성 또는 개별적 행위의 고유한 의미는 단지 '행위의 실행 자체'에 놓여 있지 그것의 동기나 결과에

41) 김봉현, 강정 구렁비 바닷 제주올레 7코스 영원히 지킬거야, 제주의 소리, 2011. 6. 12.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림5>, <그림6>와 같이 행위 하는 주체로 올레꾼을 규정짓는 것이며 그들의 반대서명 등과 같은 행위는 다른 올레꾼들과의 차이를 만들며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림5> 올레꾼들의 반대서명⁴²⁾



<그림6> 올레꾼들의 응원 푼말들⁴³⁾

올레꾼은 그들이 행위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게 된다. 강일성 외(2011)는 올레관광자와 일반관광객이 성별, 나이, 학력, 직업 등의 외적인 조건이 인식의 차이를 만들고 그들 간의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차이를 지닌 올레관광자가 올레의 고유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위의 차이는 그들을 전혀 다른 수행적 주체로 만든다. 그들이 어떤 올레꾼이 되느냐는 올레를 통해 어떤 의미를 획득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부의 올레꾼들이 자신의 관광형태, 즉 올레길 걷기에 따른 차이를 특권으로 인식하여 주민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1)씨는 '올레'얘기만 들어도 올상이다. 그는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 '나 올레꾼인데...'로 시작해 무리한 요구를 하

42) 김봉현, 강정 구럼비 바닷 제주올레 7코스 영원히 지킬거야, 제주의 소리, 2011. 6. 12.

43) 위와 동일

는 이들이 많다”며 “어느 코스를 걸다가 주택에 들어가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었다. 인심이 이렇게 야박해도 되느냐’는 항의도 있다”(중략)“어떤 경우는 ‘길에 널려 있길래 주웠는데 주민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올레꾼을 맞아도 되냐’고 항의하기도 한다”며 “올레꾼이라는 것을 특권처럼 인식하는 이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⁴⁴⁾

이들의 행위는 올레를 단순히 관광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 곳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터를 잡아 살아가는 일상 환경임을 무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올레길은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지역이면서 해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해변은 제주의 전통적 취락지구라는 점에서 올레길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촉진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올레관광자의 지역사회의 고려는 주요하다(강성일 외, 2011: 29). 그들의 올레 인식이 올레길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타자로서의 주민에 대한 시각이 동등해져야만 그들의 행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레관광자의 환경친화적 태도인 여행지의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준수, 여행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태도, 여행지의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강성일 외, 2011: 37)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는 올레길을 사이에 두고 올레꾼과 지역민의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올레꾼의 장소 정체성은 현재를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들이 올레를 통해 어떤 의미를 구성할지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규정은 올레길이 있는 한 지연된 상태로 존재한다.

44) 이현숙, "나, 올레꾼인데...", 제주의 소리, 2011. 6. 1.

3.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교육적 의의

수행적 장소 정체성은 장소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아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Twigger-Ross and Uzzell(1996; 임은진, 2011:110)에 의하면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서의 사람의 사회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장소와 관련이 깊다. 장소는 고유성, 차별성, 자기 만족, 자기 효능감을 주기 때문에 장소 정체성 면에서 보았을 때 장소는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고 나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체성을 자아와의 밀접한 관련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며 의도적 실천이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 장소 정체성의 수행적 구성이 교육적 측면에서 갖는 의의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장소 수행성의 주체가 되는 데 있어 사회-공간의 구조적 측면이나 의도와 의미의 중심으로서 실천하는 등의 문제는 발달단계상 수용과 탐색, 부분적 비판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사회적 현안을 교육내용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 유형화 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의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의 지리 교육적 의미를 찾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생활세계의 장소 의미

장소는 교육에 있어서 '지역'학습에 대한 대안으로서 위치를 갖는다. 장소는 생활세계라는 의미에 있어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는 생활공간이라는 강점으로 학습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소 학습은 장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각을 강조함에 따라 장소 정체성 및 장소 애착, 장소 유대감 등의 장소감을

키워 다양한 스케일의 장소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정아(2005)에 의하면 장소는 사회과 지리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심리적 측면에서의 학습자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지역화 학습에서 '지역' 개념이 어렵고 추상적인 데 따라 직접 경험 중심으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물과 현상을 소재로 자기화의 원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에서 지역의 개념은 인문학적 연구대상이 아닌 '지역화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아동의 마음 속 '인지지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장소는 지역화의 원리를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 적합성이 제고된 교육내용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생활세계에 근거한 내용 선정, 사적 지리로부터의 순차적 조직, 장소체험과 범례적 장소의 학습이라는 지리교육내용의 구성원리가 제시되었다. 장소감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지리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작용한다.

심광택(2003)은 총체적 사회 현상으로서 지역사회를 학습하는 것은 지역 개념의 다의성과 영역 통합의 논리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과 세계 지역 학습에 적합한 수업 방법의 지역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공간 학습, 장소 학습, 환경 학습이라는 개념, 문제해결, 가치의 단계적 학습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장소는 개인·가족·생활사의 관점에서 경관의 다양성을 다루고자 하고 있다. 즉 장소는 관계와 생활 중심의 장으로서 주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주제이며 방법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호엽(2005)은 학습자와 지리 교육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장소학습의 교육적 의의와 접근방식을 다루었다. 장소는 생활지리 학습으로 국지적 장소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민족정체성·세계시민성의 학습이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장소를 학습자의 주관적이고 구성적인 지식 자체이며 획득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경험에 관심을 두며 일

상생활의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에 관한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장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소를 일상경험에 한정함으로써 장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체성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다. 장소는 이해를 위한 탐색과 다시 자기화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주체성의 공간이므로 다양한 입장의 인식과 가치 추구 등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구성이 필요하다. 물론 내용 구성에 있어 학령단계에 적합한 구성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나. 서사성과 총체성의 장소 의미

장소를 학습자의 생활세계로 의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은진(2011)과 조철기(2007)의 연구는 장소의 현재적 구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 연구들에 따르면 장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변화하고 있고 이를 구성하는 것은 행위이며 문화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임은진(2011)은 학교 지리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아 정체성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Ricorur(1991; 임은진, 2011: 111 재인용)에 따라 정체성의 범주를 서사적으로 규정하여 장소는 과정 중에 있으며, 비종결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된다. 이에 따라 장소 학습은 정체성을 성찰하고 명료화하며 재의미화 하는 과정으로 의미 있는 장소 찾기와 글쓰기, 발표하기의 과정을 통해 장소의 자기화를 이룬다. 과정 중 이루어지는 쓰기는 자아에 대한 탐색과 반성(reflection), 정리의 기회를 주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다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 형성된다. 이는 학습의 주체이며 장소를 점하는 개인으로서 학습자의 장소를 다

루는 것이 지리교육에 있어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장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학습자가 취할 수 있는 장소 구서의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반면 조철기(2007)는 생활세계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총체성과 다층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활세계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복합적이며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장소로 행위와 구조가 교환되는 곳이다. 따라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가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과 행위 주체, 즉 학습자의 삶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장소에는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며 이를 새롭게 조명해야 함에 교육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장소학습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일상 환경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미래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젊은 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그들의 잠재적 기여를 알도록 하며 장소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장소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통해서 더 넓은 공간적 공동체의 책임의식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이 장소는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구체적 행위를 통해 자기화 된다는 것, 총체적 관점을 견지하여 장소를 사회적 관계의 영향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수행적 장소 정체성과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장소를 수용하고 장소의 사회성을 학습하고 구성하며 어떤 특정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정체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여 인식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그 것만의 독특함이나 선명성을 지니는 것이다(이석환 외, 1997: 178). 사람을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로 여기고 장소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때, 장소의 정체성(identity of place)과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 of people with place)이 일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인간의 실천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간과 공

간의 밀접한 경험관계 속에서 차이에 대한 체험을 통해 물질화·의미화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소는 단순히 장소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통해 유사하거나 일치한다고 의미 지을 수 있는 지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범주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동이 가벼운 시대에 장소는 터를 잡는 곳이 집이며 내가 중요하다 여기고 영향을 주는 공간이 집이 되는 것과 같이 독특함을 부여하여 발생하는 곳이다. 장소에 본질적으로 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장소로 만든 인간의 행위와 의도가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장소의 자기 정체성에는 분명 실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장소 정체성이라는 사회-공간적 대상과 자신의 동일시는 인간이 '시공간 위에서의 삶의 경로'를 갖는 존재임을 의미한다(Hägerstrand, 1970; Harvey, 구동회 외역, 2009: 251 재인용). 이석환 외(1997: 179)에 따르면 삶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수많은 장소들은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에 있어 장소, 타인 및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통로가 될 것이다. 또한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집단이 되는 기본 범위로서 지역에 대한 '지역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은 인간 공동의 가치를 환경 속에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장소적 상징물은 공통의 역사를 상기시키거나 확인시켜주는 물적 환경을 통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소 정체성의 진정성(authenticity)은 수행성에 있다. 수행성은 일정한 규모의 소환경이 갖는 지리적 특성과 인문·사회적 특성을 개인과 동일시하거나 집단적 공동체성으로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관여나 몰입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내부자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수행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교육적 의미에서 자기화 된 장소를 획득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장소에 대해 자기적 관점을 획득한다는 것은 장소의 주체성으로 진정성을 가리는 척도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다양한 장소성에 대해 탐색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장소에 부여함으로써 지리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한 환경적·사회적 힘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일원임을 알고 일상적 실천으로 영역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경계를 설정하는 차원의 것이 된다. 즉 장소는 거의 모든 스케일에서 존재하며 우리의 의도가 지향하고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 따라 달라짐을 알게 하고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V. 결론

장소는 개인적 주관성의 중심이자, 장소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장소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독특하고 강렬한 장소 경험은 지리적인 거리나 위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해 얻게 되는 친숙한 장소감은 장소가 인식되는 과정과 의미화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관계의 복잡함, 다양한 의미화와 실천을 전제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성을 확보하는 일과 관련된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첫째로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스케일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 구조를 통한 장소 인식을 의미한다.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다차원적 공간 스케일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 간의 상호 의존과 연결성의 증대로 범세계적 일상성이 장소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범위이며 사회-공간적 현상에 대한 내면화 과정에서 소속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장소는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사회-공간적 현상에 대한 교차 지점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더 이상 고정되거나 확고한 위치 설정이 아닌 '횡단'과 '뛰어넘기'를 통해 실현해야 하는 영역화 과정이다. 스케일과 네트워크는 이러한 장소의 무경계성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주체가 발휘해야 할 의도와 실천의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장소를 구성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도와 의미를 공간상에 부여하는 것으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장소는 관계적 개별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장소는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동일성을 이루는 것이나 사회-공간 구조 속에서 의미를 전제하므로 타인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야 하는 공간이다. 즉 장소는 다른 장소와 구

별되는 차이를 통해 개별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관계의 가변성은 장소를 구분과 통합의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장소는 관계를 실천하면서 구성되는 영역화·사회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장소를 구성하는 일은 재현과 생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주체성과 관련된다. 재현이 장소를 둘러싼 지배적인 사회-공간 구조에 따라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장소는 차이와 주관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영역이 될 수 없다. 생성은 장소 구성에 있어 자신만의 흐름과 질서를 특정 사회-공간적 구조 속에 새겨 넣는 것으로 장소를 통해 새로운 공간 질서가 생겨나는 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자신의 문화적 영역으로서 장소를 구성하고 장소 주체가 되기 위해 수행성이 필요함을 밝혔다. 수행성은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통해 주체를 구성하려는 표현으로 수행적 정체성이라 한다. 즉 수행적 장소 구성은 행위의 반복을 통해 의도와 의미의 주체로서 공간을 자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는 자신과 타자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실천을 통해 드러나므로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기화를 추구하는 일은 자신의 사회-공간적 위치를 자각하는 상태로 장소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체의 안정된 위치는 다른 정체성과의 복잡한 관계설정에 따른 지속적인 의미화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있어 장소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운다.

장소는 인간의 개별성과 다원성을 추구하는 일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성은 그들의 일상성을 실천하는 가운데 의미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행위는 수행적 전략으로서 반복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며 공간적 의미를 획득할 가능성을 부여한다. 장소 생성은 사회-공간적 구조를 새롭게 기획하는 일이며 다양한 주체성의 출현을 의미한다. 장소는 더 이상 특정한 공간적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은유적·심리적 의미의 무의식적이고 일상적인 양식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수행적 장소 정체성의 의미는 제주도의 올레를 통해 적응과정을 거쳤다. 올레는 지역민이 정체성을 수행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우연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제주 올레가 담론화 되는 과정은 올레의 장소 의미가 지역민의 관점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나타냈다. 제주 올레는 역사적·지리적·경제적 측면에서 주변부라는 관계적 위치에 따라 지역민의 정체성을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로 한정시키고 있었다. 또한 제주 올레는 지배적 담론의 가치와 구조를 내면화 하고 있었다. 마을길이 올레에 포함되는 일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길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가치와 구조에 포함되고자 하는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올레를 통해 드러나는 지역민의 정체성은 소수자적 입장에 처해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올레를 둘러싼 주민적 관점의 의미화는 주류적 의미에서의 성찰, 안식, 평화, 치유로부터 변형적·대항적으로 생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된다는 것은 거주 개념을 넘어서서 친밀하고 사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장소의 은유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다. 올레의 주민적 정체성은 사회-공간 관계에 있어 스스로의 주도권을 만드는 것이며 장소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장소 정체성이 시공간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것에 변화하며 적응해야 하는 문제는 결국 '소통'이라는 가치에 이른다. 지역 내부의 자발적인 의미화는 친밀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제주성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발생하는 의미를 실천하며 장소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행위의 능동성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된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며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중심으로 장소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장소의 중요성은 나의 장소를 통해 타인의 장소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지리적 실천에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돈구, 1988, 해석학적 순환의 인식론적 구조와 존재론적 구조 - Schleiermacher와 Gadamer -, 한신논문집 제5권, pp. 43-80.
- 강문규, 2006,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각, pp. 230-240.
- 강성일 외, 2011, 제주올레관광자와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 방문동기, 환경친화적 여행태도, 웰빙인식을 중심으로 -, (사)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25권 제6호, pp. 23-40.
- 강신주, 2010, 『상처받지 않을 권리』, 프로네시스.
- 강일선 편역, 1989, 『현대인의 삶과 참교육』, 나남.
- 고은, 1976, 『제주도, 그 전체상의 경험』, 일지사.
- 국립민속박물관, 2007, "하도리 민속지", 『마을민속조사보고서』, 국립민속박물관 · 제주특별자치도.
- 권영락 외, 2005, 장소감의 환경교육적 의의, 환경교육, 18권 2호, pp. 55-65.
- 권정화, 1995, 미로 속의 사회 공간이론과 대중문화 연구의 유혹, 한국공간환경연구회, <공간과 사회>, 5호, pp. 95-124.
- 권정화, 1996, 지역인식이론과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화, 1997a, 지구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 초등 사회과 교육에서의 지리적 상상력의 의의, 지리교육논집 37, pp. 1-12.
- 권정화, 1997b, 지역지리교육의 내용구성과 학습이론의 조응, 대한지리학회지 제32권 4호, pp. 511-520.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 노트』, 한울.
- 권효숙 외, 2006, <제2장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장소의 재현과 정체성의 정치>, 사회과 교육의 논리, 교육과학사, pp. 41-56.
- 기현주, 2010, 애나 드비어 스미스의 『황혼』 : 수행적 정체성과 인종적 경계 허물기,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현대영미드라마 제23권 제3호, pp. 33-52.
- 김기덕 외, 2001, 논문 : 기후 특성과 관련된 제주도의 민가 경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7, No.3, pp. 29-43.
- 김덕현, 2008, 장소와 장소상실, 그리고 지리적 감수성, 배달말학회 배달말

- (43), pp. 1-20.
- 김영돈, 2000, 제주도 제주 사람, 민속원, pp. 202-211.
- 김은석, 1998, 제주도 하가리 마을의 생태학적 공간구조, 한국사진지리학회, pp. 1-18.
- 김정아, 장소 중심 지리교육내용 구성원리의 탐색, 2005,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현, 2009, 조화를 꿈꾸는 제주올레, 인천문화재단, 통권 15호, pp. 94-97.
- 김태일 외, 2006, 제주마을의 공간구성 특징에 관한 연구 -협제마을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학술대회 개인발표, pp. 77-94.
- 김형준, 2007, 문전본풀이를 통해 본 제주전통주택의 경계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3호(통권221호), pp. 179-186.
- 김형준, 2011, 『제주건축, 경계에서 사유하기』, 경문사.
- 김홍식, 1978, 창립 20주년 기념특집 / 심포지움 : 전국민속종합조사의 회고와 전망 - 의식주 분야, 한국문화인류학 Vol. 10, pp. 140-146.
- 남호엽, 2005, 지리교육에서의 장소학습의 의의 접근 논리, 제44권 3호, pp. 195-210.
- 류재명, 2006, 지리교육 내용구성 과정에 개입되는 스케일의 문제, 대한지리학회 2006년 연례학술대회, pp. 33-34.
- 박경환, 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6권 제4호, pp. 297-310.
- 박규택 외, 2010, (탈)중심화 경관의 해석을 위한 틀: 권력, 주체성, 수행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 355-368.
- 박근수, 2010, 도보길의 의미와 관광, 인문논총 27, pp. 99-111.
- 박영옥, 2009,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김영사.
- 박희만, 사회과교육기반으로서의 일상성 비판, 2008,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태열, 2009,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 197-210.
- 손명철 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 송성대, 1993, 濟州道の 風土住家 -草屋民家を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연구 제10집, pp. 99-174.

- 신승철, 2009, 실천가 가타리의 호출을 위한 10년의 결실, 진보평론 제42호 2009 겨울호, pp. 363-375.
- 심광택, 2003, 지역 학습에서의 공간 설명·장소 이해·환경 가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1권 3호, pp. 17-31.
- 심우경 외, 1999, 연구논문 : 제주도 전통민가정원의 특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17권 3호, pp. 1-15.
- 이구표, 1999, 욕망의 형이상학에 거는 탈주체적 정치(학)의 포스트모던적 모험, 진보평론 창간호, pp. 408-412.
-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 이미원, 2010, 한국 탈놀이의 수행성 연구, 한국연극학 제42호, pp. 5-27.
- 이보라, 2009, 제주도 내 '군사기지 유치' 담론을 통해 본 평화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석환 외, 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2권 제5호(통권91호), pp. 169-184.
- 이영윤, 2010, 언론의 특정 지역 공간 담론화에 대한 분석, 탐라문화 36호 pp. 301-330.
- 이현재, 2009, 여성,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사이 ;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pp. 7-36.
- 이현재, 2009, 장소로서의 몸과 비환원적 물질성, 대한철학회논문집 「철학연구」 제110집, pp. 123-145.
- 임병조, 류제현, 2007,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4호, pp. 582-600.
- 임옥희, 1999, '법 앞에선' 수행적 정체성, 여성이론 제1호, pp. 242-263.
- 장미경, 2005, 소수자운동의 대안 운동적 가능성과 열악한 현실과의 거리, 진보평론 제24호, pp. 319-323.
- 전명숙, 2010, 슬로우 관광의 탐색적 고찰 - 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8권 제1호, pp. 109-123.
- 정영철 외, 1991, 巫俗儀禮를 통해 본 濟州道傳統住居의 空間構造 및 意味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통권33호, pp. 73-85.
- 정현주, 2006, 사회운동과 스케일, 대한지리학회 2006년 연례학술대회, pp.

39-41.

제주도, 1998, 『제주의 문화재』 (증보판).

조현순, 2001,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 - 패러디, 수행성, 복중,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9권 제1호, pp. 179-207.

조현순, 2003, 의미화 되는 물질, 그래서 중요한 육체, 당대 비평, 통권 제22호, pp. 393-399.

조현주, 2008, 장소 아이덴티티의 가변성 사례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 연구, pp. 732-740.

조현준, 2006, 퀴어의 눈으로 본 젠더와 타자 이야기,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2호 pp. 317-324.

조현준, 2009, 젠더 계보학과 여성 없는 페미니즘 -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영미문학연구회 안과밖, pp. 180-206.

한지훈, 2011, 여가활동 관여도와 장소애착, 만족도, 장소로열티의 구조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창기 편, 1983, 『한국의 발견-제주도』, 뿌리깊은 나무, 한국 브리태니커.

현용준, 2004, 靈, 도서출판 각, pp. 77-83.

황보영조, 2010, 역사와 관광 : 20세기 에스파냐 관광 정책의 주요 흐름, 대구사학회, pp. 139-167.

D. P. McCormack, 2009,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Elsevier Science Ltd, pp. 133-136.

David Harvey, 구동희 외역, 2009,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David Harvey, 박영민 역, 1995,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pp. 33-71.

Edward Relph, 김덕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Gill Valentine, 박경환 역, 2009, 『사회지리학』, 논형.

Hannah Arendt, 1996, 이진우 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J. L. Austin, 김영진 역, 1992, 『말과 행위』, 서광사.

Judith Butler, 김윤상 역, 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Judith Butler, 조현준 역, 2008,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Rebecca Solnit, 김정아 역, 2003, 『걷기의 역사』, 민음사.

Sara Salih, 김정경 역, 2007,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엘피.
Yi-Fu Tuan, 구동회 외 역, 1995,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신문기사>

김봉현, 강정 구럼비 바당 제주올레 7코스 영원히 지킬거야, 제주의 소리, 2011. 6. 12.
김봉현, 순례자들은 산티아고 길을 인생의 전환점이라 불러, 제주의 소리, 2010, 11. 7.
김순이, 나지막하게 굽이돌아나가는 제주 올레, 문화재 사랑, 문화재청 피플 칼럼, 2009. 11. 24.
백금탁, 제주올레 퍼주기식 예산 논란, 한라일보, 2010. 11. 30.
이상민, 제주공항 이용객 김포공항 추월, 제민일보, 2010. 1. 21.
이현숙, 나, 올레꾼인데..., 제주의 소리. 2011. 6. 1
표성준, 제주올레, 그 이후를 걱정한다, 한라일보, 2010. 1. 26.
KBS, 다큐 3일-제주올레 72시간, 2009. 7. 11.
MBC 특선다큐-길, 산티아고부터 올레까지, 2010. 12. 29.
제주올레 홈페이지 www.jejuolle.org

A B S T R A C T

Exploring the performative meaning of place identity in Jeju island's Olle

Kim, So Yeon

Major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pessor Kwon, Jung Hwa, Ph.D.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features in experiencing a place and to realize the appropriation of a place at the modern times. In line with this, it investigates the performative meaning of the identity which is generated through repetitive practices of an act by applying concept of performativity.

A place signifies a geographical expression as well as the most direct and subjective meaning regarding the self. Traditionally, a place has signified a value as an accumulated layer of an individual experience on space, been proceeding gradually and chronically at the same time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apital has accompanied the qualitative changes. To obtain a place involves that a consciousness regarding the

socio-spatial relation has been more important than direct experience. Indirect experience in via of the media or the printed media has become a spatial experience which facilitates self-consciousness and appropriation in terms of the socio-spatial relation. A place is to be recognized as a practice of appropriation from the acquisition of directness of the socio-spatial relation regarding the self.

A place is recognized through average dailiness and territoriality. In particular, dailiness requires the experience of a scale and a network as being a concept for the sake of experiencing a place which become internalized as a habit. A scale indicates the multi-faceted socio-spatial experience, explaining the definition and dynamics of a spatial boundary. Then, network determines the space as a connecting net following connectivity and mutual dependence, further forms a meaning of a place by crossing multi-dimensionally no other than being restricted to the hierarchial scale.

Territoriality of a place requires exclusion and subsumption in a bid to balance in the midst of acquiring individual internal equality and collective homogeneousness. Furthermore, it demands continuous practices as realizing the differences generated from the social structure. In order to tell a genuine place from the homogeneousness of a space resulting from an economic system of democracy, it needs to make a difference from the social group or structure. In short, a place is variable as being a process which has formed self-consciousness and appropriation in terms of a variety of socio-spatial relation.

Thus, when it comes to a place,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meaning in the social relation and structure a place as well as to know a

social structure: this includes 'being given a identity by a place, activating identity to a place' as being a matter of being closely involved in the subjects which have consisted of a place. To recognize something as a place means to have the space be territorialized. Accordingly to consist of a place is to execute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eaning based on the socio-spatial relation. An act is able to activate a possibility of creating various places as practicing spatial experience. Then, daily act has to have the areas of the differences being excluded due to the social structure exposed to the area of consciousness. Furthermore, an act needs to plan the socio-spatial structure by means of performativity by sophisticating identities based on a place.

In the case of Olle in Jeju Island, the formation of identity has completed the meaning as explosive as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ocial relations beyond geographical scope of Jeju. However identity of Olle is not free from the meaning of the controlling group or the impacts of the media, and its advantages have been placed an emphasis because of the diffusion of the economic effect. Culture · politic · economic activities of a region have been justified amid representation of the meaning of Olle. Meaning of Olle has not been apprehended by the local residents and identity of place has not been created on the basis of average dailiness. Olle implies an event showing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been in the position of otherness which is economically · politically minority.

Therefore a performativity of place identity to be created through Olle is to restore the activeness of the local residents, organizing the meaning of a place in which collective experiences are reflected. Forming of a local community in Olle will make the Jeju residents as a subject of a

place as it is analyzed that giving the meaning regarding a place and practice of an act are the most specific strategy for making a subject of a plac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Social Science Education) in February, 2012.